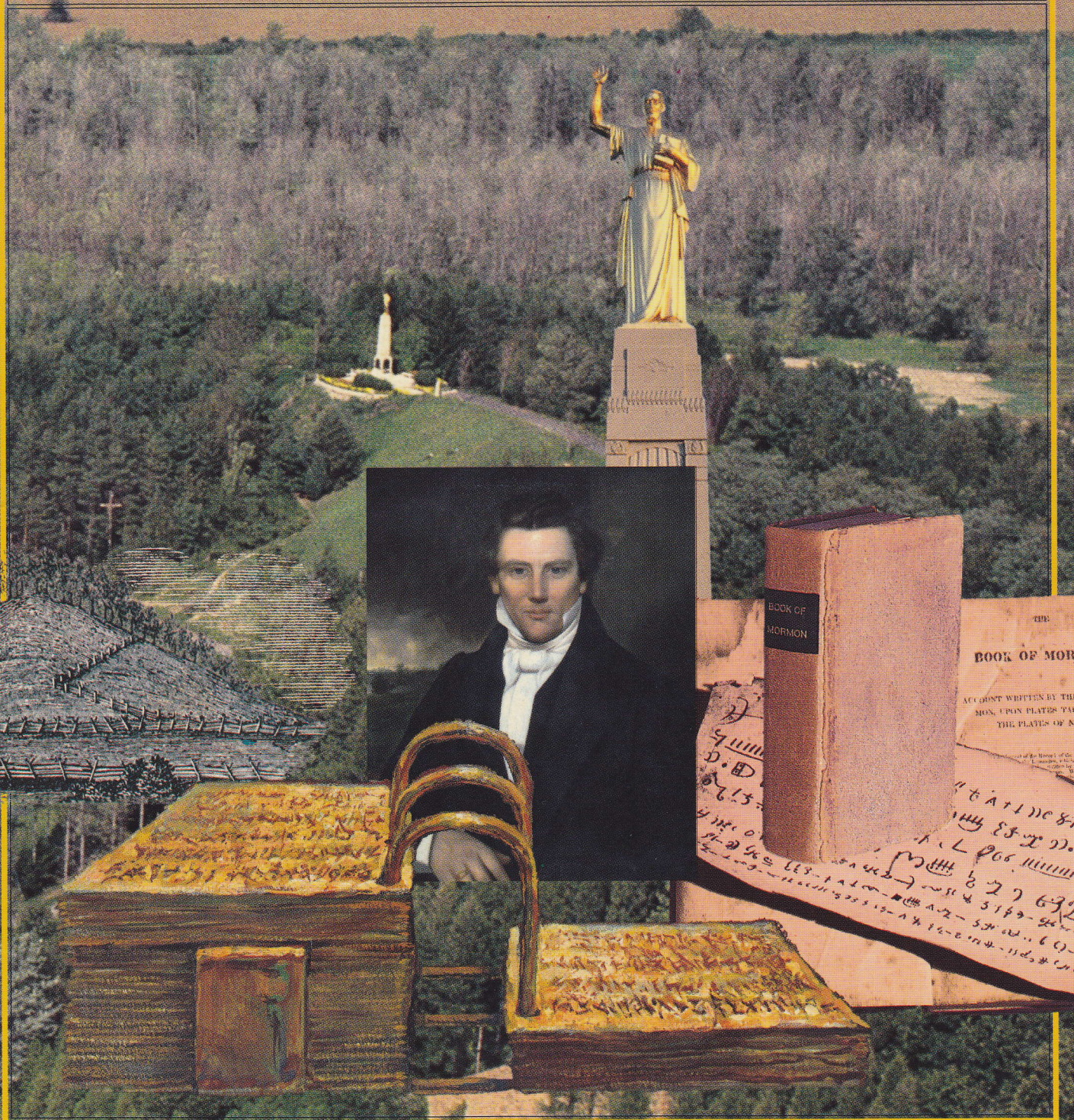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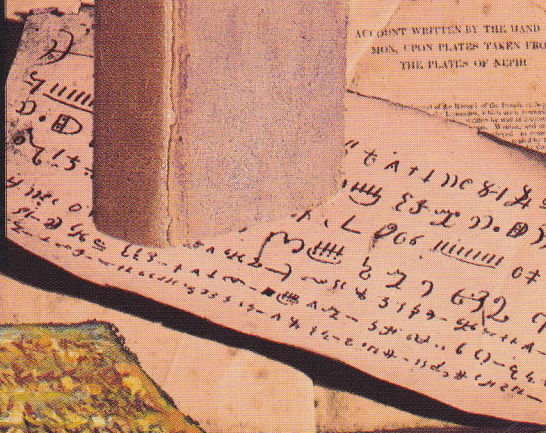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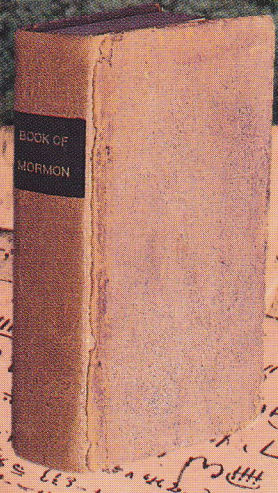


성도의 빛 6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6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어린이란

성도의 빛

1988년 6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롭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5권, 제24권, 제6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6KO

PRINTED IN KOREA 6/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물문경의 기적은 어린 소년에게 천사가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이 포함된 금판이 구모라 언덕에서 나오고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그 메시지가 세상을 위해 번역되고 인쇄됨으로써 일어나게 되었다. 이번호의 물문경 기사를 참조한다. (“첫째 물문경 인쇄”, 게리 이 스미스 그림; 미주리주 인디펜덴스 소재, 제조직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허가를 받아 복사한 요셉 스미스 초상화)

목차

2 대관장단 메시지 :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9 작은 일이 중요함 조셉 비 위스린 장로

11 사실 같지 않은 개종 : 다니엘 웨스터 존즈 책 맥칼리스터

14 나는 그 책을 불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돈 빈센초 데 프란체스카

19 절대적인 진리 스펜서 더블류 킴블

20 회원 선교사가 됨 캐롤 와그너 터틀

23 질의 응답 베스 티 스펙맨

24 덩굴 래리 힐러

25 사람들에게 물문경을 읽도록 권하는 이유 제이 이 젠슨

29 신앙이 있어야 함 아더 알 배셋

36 방문 교육 메시지 :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37 물문경과 오늘날의 가정 다윈 엘 토마스

청소년란

41 “물문이 아니었다면” 리안 아스큐

43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마이클 칼

47 길을 건너 감 비비안 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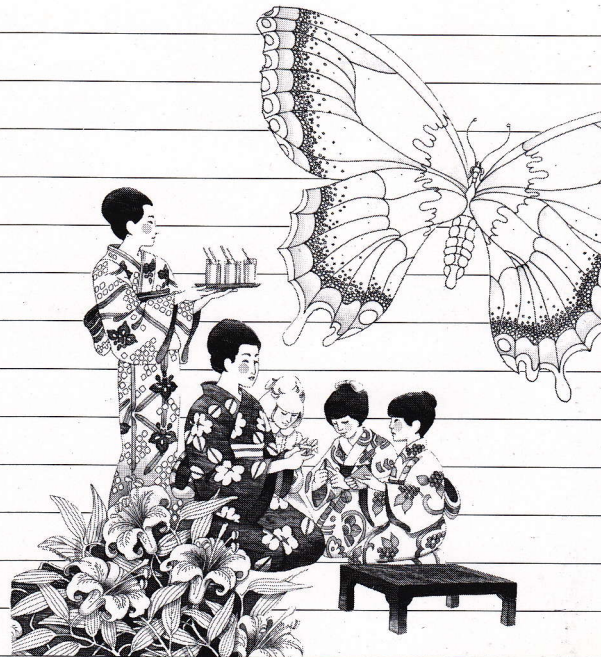
성도의 빛 어린이란

2 별들의 축제 마가렛 나이트 헐치

6 힐라맨 그리고 믿음이 강한 이천 명의 젊은 용사들 팻 그래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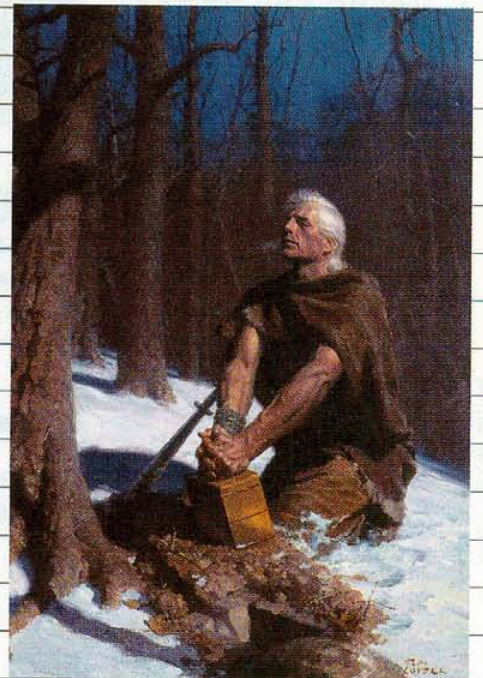
8 심심풀이 리치 라타

교회 및 지역 소식





Daniel Webster Jones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장관장 제1보좌

나는 교회 회원들이 주님께서 그의 제자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명령이며, 또한 벗어버릴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지상의 모든 국민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1835년 십이사도 제일 정원회가 조직된 다음, 대관장단 보좌인 올리버 카우드리는 총관리 역원에게 한 가지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 말씀은 그 첫번째 회원들의 뒤를 이은 십이사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란 다음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어느 한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영혼과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 복음은 땅 끝까지 퍼져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단순함과 순수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천거하여 은총을 구할 것입니다.”(교회 정사, 2:196-98)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십시오. 인간의 영혼은 모두 똑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앞으로 나아가, 온 지상을 채울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권고를 주신 후에, 주님은 교리와 성약 112편으로 알려진 계시를 주셨으니, 그것은 십이사도에게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논쟁하며 날마다 경고하는 음성을 발할지이다. 저녁이 되면 네 연설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민이 잠들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저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효과적인 문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정 112:5, 19)

“말을 더듬는 자”

교회의 초기에 다른 주와 캐나다에 선교사들이 보내졌으며, 1837년에는 바다 건너 영국으로도 보내졌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히버 시 킴블 장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은 바로 킴블랜드 성전에서였습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내게 ‘나의 총 히버를 영국으로 보내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고 속삭였습니다.” 킴블 장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설교 능력이 부족한 것을 염려했습니다. 겸손하게 그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말을 더듬는 자라 그러한 일에는 도저히 부적합합니다. 제가 어찌 학문, 지식, 경건함으로 전기독교계에 유명한 그 나라에 가서 전파하여 종교를 키우고 지성이 뛰어난 국민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올슨 에프 휘트니가 *히버 시* 킴볼의 생애에서 인용,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45년, 104페이지)

그러나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영국으로 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언어는 그들의 언어와 같다는 것을 알았으나, 국민들의 관습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니다. 그들은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역사는 그들의 수고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문화 양식이 전혀 새롭고 독특한 곳에 있는 섬에도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새로운 관습을 익혀야 하는 유럽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니다.

성도들은 서부로 이주한 이후 비록 광야를 개간하고 사회를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일에 부딪혔지만, 지상의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니다. 1852년에 열린 대회에서는 집회에 모인 형제들이 유럽 지역으로뿐만 아니라 중국과 사이암(현재의 태국)으로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니다. 그 개척자 시대에 선교사들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인도로 보내졌음을 유의해 보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니다.

개척자들의 용감성

나는 개척자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먼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회원수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그렇게 멀리까지 보낸 용감성을 경이롭게 생각하며, 용감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신앙이라고 특징짓고 싶습니다. 팔리 피 프렛의 칠레 여행 기사를 읽은 사람은 지상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시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초기 선교사들의 용기와 신앙을 감사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니다.

그들의 장기간의 항해 여행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니다. 지명받은 나라에 도착한 그들은 그들을 맞이해 주는 친구도

없었고 동반자도 없었습니니다. 그들이 겪게 될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으며, 함께 일해야 될 백성들의 언어에 관한 지식도 없었습니니다. 그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음식과 기타의 생활 환경에 적응하고자 애쓰다가 병이 들기도 했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 사업의 사명이 확고했으며, 지상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니다. 그들이 접하는 문화가 그들에게는 도전이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보다 큰 책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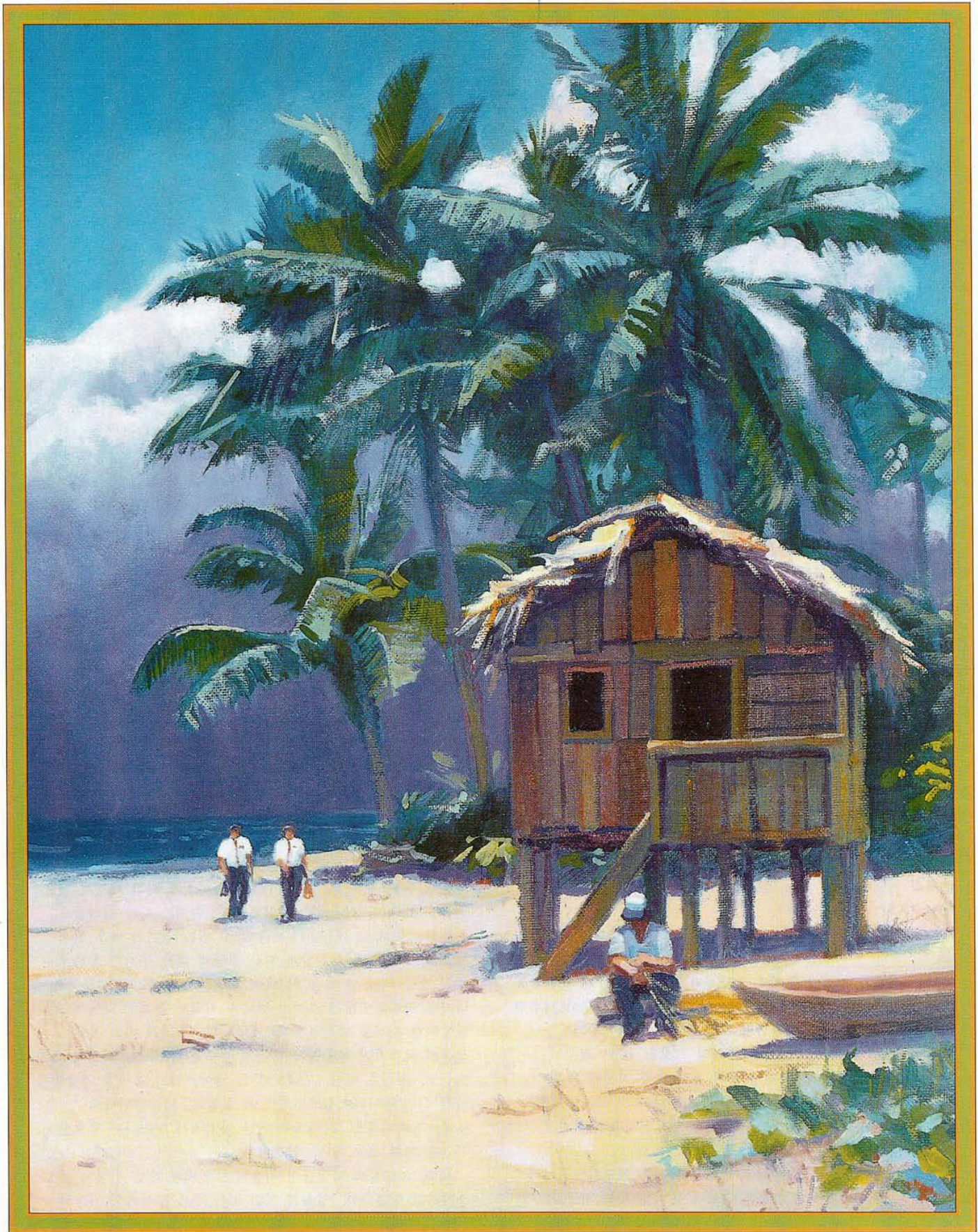
“보다 가까와진” 세상

십구 세기 중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여 전세계적으로 복음이 보다 쉽게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는, 분명히 우리는 현대의 교통 수단에 의해 “보다 가까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렸지만, 오늘날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초호화판의 거대한 비행기를 타고 열 시간 후면 일본의 동경에 도착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 훌륭한 식사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의 무역로를 끊임없이 가로질러 나르는 정기 여객기의 많은 비행량의 중요성을 가늠해 여길 수는 없으며, 문화적 차이에 관한 한 국가간의 그러한 상호 작용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니다.

둘째, 전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의 다른 민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니다. 현재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방문자는 자기가 방문하는 나라의 국민들에게서 자기가 떠난 지역의 문화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국제적인 방송망과 세계의 우수한 통신사들 덕분에 파리, 프랑크, 워싱턴 디시, 프레토리야, 남아프리카 등지를 가정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뉴델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및 세계의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거의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지구상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사용될



우 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대의 교통 수단으로 “점점 작아”집니다. 국가간의 상호 작용도 무시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은 그들이 지명받은 국가의 언어로 복음 메시지를 알리는 능력을 상당히 갖추고 출발합니다. 세계에 복음을 가르침에 있어서 위대한 발전의 계기는 교회의 언어 훈련원 설립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원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훈련은 세계의 어느 곳보다도 뛰어납니다.

선교사들이 신성한 봉사 사업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실상 그들을 축복해 주는 또다른 요소는 선교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신참자가 아닙니다. 그들과 그들의 부인들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분별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와 고문으로서 젊은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찾아오는 부부 선교사들을 상담하여 빠져들기 쉬운 함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해력의 증가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결합시켜 주는 지상의 많은 지역에 존재하는 이해심의 놀라운



온 세상의 선교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교회 지도자의 부름에 활용하는 선교부장 부부의 지도를 받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증가를 주목합니다. 지구의 한쪽에 사는 사람들이 내게는 지구의 다른 쪽에서 내가 본 사람들과 매우 똑같이 보이며 또한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즉 그들의 문화는 비록 다를지언정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통 요소들을 생각해 봅시다. 말하자면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 고통에 관한 염려, 지도력의 인정, 우리가 도움을 간구하고 우리 모두의 심판대에 앉아 계시는 분에 대한 더 높은 권세의 인정, 영원한 양심, 선악의 분별 등이 그렇습니다.

수년 전 나는 소위 비기독교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선교사 공과가 기독교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가 어떤가에 관한 질문을 받았읍니다. 나는 우리는 똑같은 영원한 진리에 의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은 공과를 사용한다고 대답했읍니다. 전세계의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추울 때는 따뜻함을 구하고, 같은 종류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슬픔을 겪고, 기쁨을 압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초월적인 권세를 숭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다양하게 묘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자각하고 있으며 그분에게서 그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큰 힘을 찾습니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차이점이—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다른 문화에서—복음을 나누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보통 정중함 예의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받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주님의 영의 도움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영으로] 전파하는 자와 [영에 의해]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성 50 : 22)고 말씀하실 때 그 과정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름에 있어서 우리를 각자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주님의 영이라는 사실에 대해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와 가르침 받는 사람과의 표면적인 차이점은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 놀라운 따뜻한 관계와 이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글자 그대로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이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현재 약 215개의 선교부가 있으며, 35,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북미, 중미, 남미 지역뿐 아니라 철의 장막 이쪽편의 모든 유럽 국가, 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태평양의 많은 섬들에도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복된 복음은 여타의 국가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기에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말일성도들은 똑같은 음성으로 말하며 똑같이 간절한 영으로 똑같은 영원한 진리를 간증합니다. 그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대가이지만, 그 결과는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미래에는 보다 많은 시련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듣지 못한 수십억의 인구를 생각하면 모든 인류를 가르치라는 우리의 책임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갈 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의 법률도 존중하며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적당한 시기에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 예정표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즉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고 영감을 구하기 위해 겸손히 기도할 때,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친지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발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일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 하는 겸손한 남녀노소에 의해 이룩될 것입니다.

“나가는 왕국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일에 변함없이 꾸준히 충실한 자는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겠고 어두워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몸이나 사지나 관절도 피로하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털 한 오라기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교성 84 : 80)

그 사업은 주님이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 : 88)

우리의 책임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요 축복 또한 하늘에서 약속된 것이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우리는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영감에 찬 가르침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 하도록 합시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마침내는 온세계에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다니엘 2장 참조) 나는 이 진리에 대한 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영감을 구한다면, 우리의 상황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가 도울 수 있다는 진리를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축복이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2.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현재의 교통 통신, 수송 및 교육 제도 덕분에 이전의 세기에 회원과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3. 모든 국가의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고통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저 높은 권세를 가진 존재를 인정하며 선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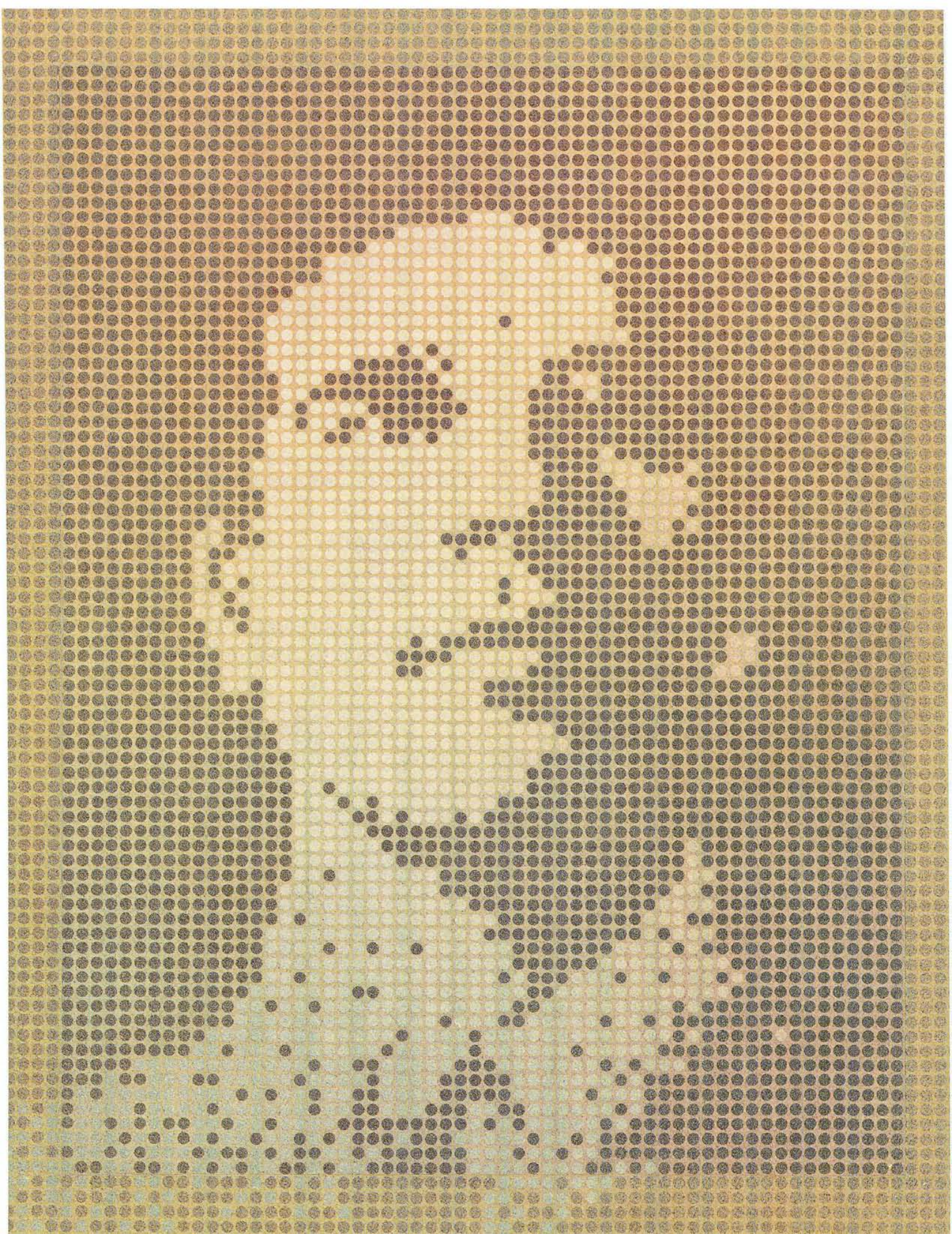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4. 사람들간의 차이점은 예의바른 태도와 사람과 주님의 영에 의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5. 우리가 주님의 영감과 인도를 구할 때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려 하는 우리의 노력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라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한 후에 이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는가?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가?



작은 일이 중요함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문제는 시간의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소위 작은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요즈음 이 생은 작은 일들—매우 중요한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작은 일들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로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성 64:33)

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작은 것이 하루 중의 매시간마다 지나가는 분초라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것은 무시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시간마다 60분이란 일정 비율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분을 보태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분이란 시간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개인의 생산성에 대해 생각할 때 1분의 관리는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먼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작은 일들이 정리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활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과 정신적인 복지를 돌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적인 노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여분의 에너지와 힘을 다해 적당한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은 음식을 섭취를 현명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몸에 유익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을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는 일들에 대해 생각합니까?

우리의 몸은 참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각과 운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현명하지 못하면, 이러한 작은 일들은 곧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여 우리의 성공과 봉사 능력을 제한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보여 주신 온전한 모범을 생각할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대하게 되면 그분은 각 개인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기분 좋게 온전하게 대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간단한 예절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미소, 칭찬, 긍정적인 인사, 격려의 말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작은 일들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생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 인내와 관용은 우리가 이웃과의 교제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운동이나, 사업 또는 교회 활동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 두 가지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진실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그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중요한 또 다른 작은 일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조그마한 봉사 행위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판장은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만 봉사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고

10월 2주
 10월 2주
 10월 2주

배워 왔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은 봉사 행위,” 성도의 빛, 1976년 12월호, 1페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체를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잠재적인 성품과 동정심과 기쁨,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지식을 넣어 주시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내부에 신의 성품이 시작됩니다.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참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니파이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 : 27)

우리는 자신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줄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언자 엘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한 말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엘마서 37 : 6)

영적인 자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 다른 불의한 욕망에서 멀리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다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이며, 이웃의 잘못을 좀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보다 많이 하고 비판은 보다 적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자질의 발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탄이 주로 정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사실상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단계적인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루시퍼는 작은 일들이

실상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고 영을 파괴시킬 때라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정치 못한 복장과 외설스러운 태도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언어와 태도상의 약간 무분별한 것도 아주 건전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향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작은 단계를 반복한다면 조만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가능한 작은 기회가 악을 극복하고 영적인 힘을 배가하도록 주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덕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장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우리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입니다.(교성 121 : 45 참조)

사실 작은 일이 점차 큰 일이 되는 것인 바, 그러한 작은 일은 우리가 보다 큰 힘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할 때 한층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영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 계신 우리의 예언자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십이사도의 일원이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3년 10월 4일, 3페이지)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 보신다는 것을 이 생에서 배워 왔기 때문에 매일 매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언제나 친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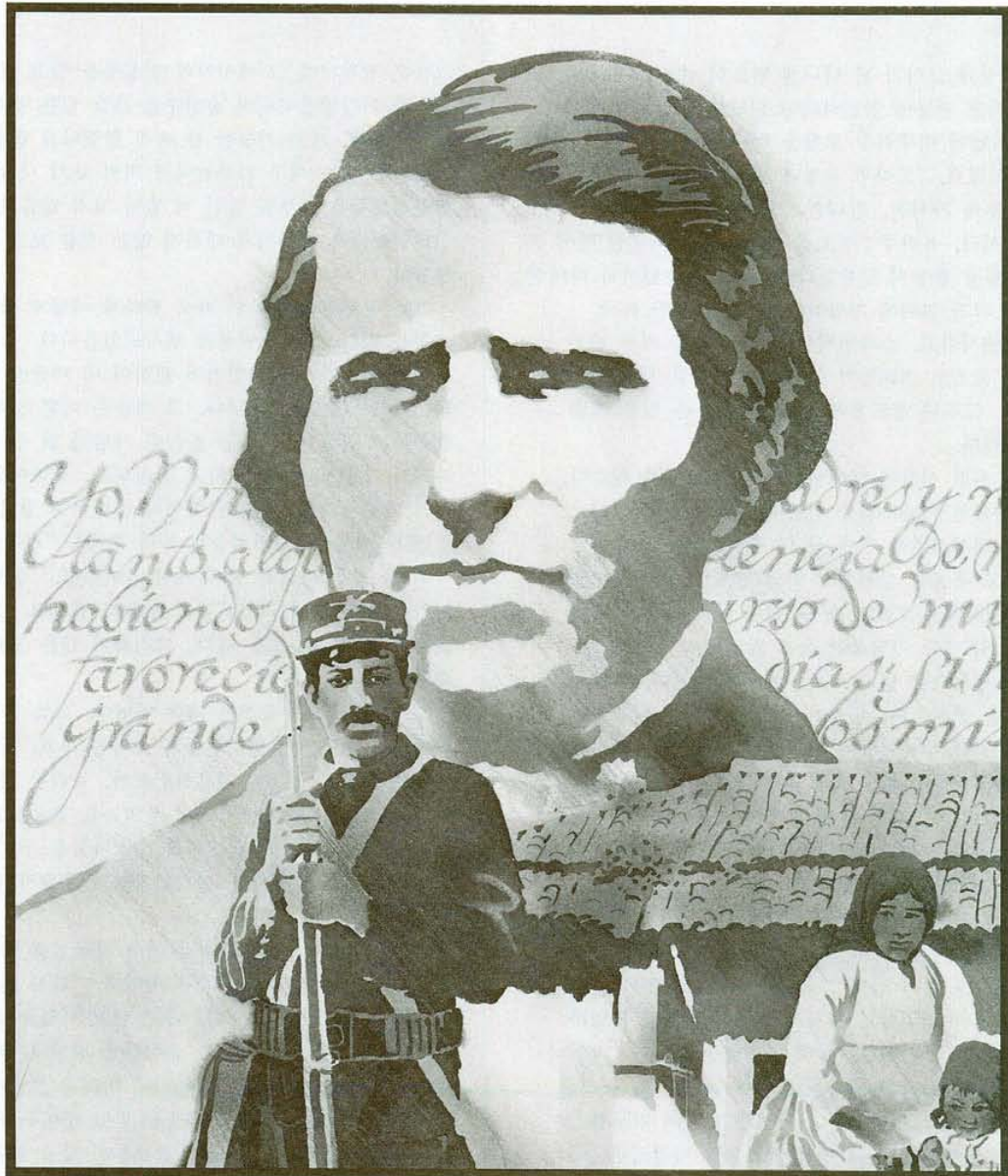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나는 소위 이러한 작은 일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

1986년 10월 26일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요약한 것.

사실가지 않은 개종

다니엘 웹스터 존즈

미주리주의 한 고아 소년은 자라서 멕시코에 교회의 길을 열었고
몰몬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사업을 시작했다.



잭 맥칼리스터

열

한 살에 고아가 된 다니엘 웨스터 존즈는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 참전하려는 일단의 지원군과 함께 1847년에 미주리주 고향을 떠나 미국 서부로 향하였다. “도박과 욕설과 싸움과 그밖에 거친 행동”은 그가 후에 자서전, *인디언 속에서 산 사십 년*(솔트레이크시티, 유타주 : 청소년 인스트럭터 사무실)에서 쓴 것처럼, 당시 일상 활동의 일부였다. 그러므로 초년기의 다니엘 웨스터 존즈는 그가 교회에 가입하여 사십 년 동안 미국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고, 스페인어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으면서도, 최초로 스페인어 물몬경을 번역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는 이 모든 일을 해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어디선가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얻었다. 지원군과 함께 멕시코에서 지낸 삼 년 동안 그는 “군대의 일반적인 거칠고 무모한 생활에서 여러 면으로 함께 참여했으나, 친구의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악한 행위와 독한 음료를 마시는 일”에는 가담하려 들지 않았다.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인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정죄받은 느낌을 받았으며,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내게 알려 주시기를 진지한 마음으로 자주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속임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거친 생활 속에서 그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역시 예언자가 될 자격이 있으며, “그들에게 성경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1850년에 솔트레이크시티로 여행하는 큰 무역 회사와 함께 멕시코를 떠났다. 도중에 그는 총기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가까스로 살아 남아 그의 동료가 그를 솔트레이크시티 남쪽 프로보 근처의 말일성도 정착지 근처에 데려다 주었다.

당시에 성도들은 종종 여행자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몇몇 친구들이 교리와 성약을 읽으며 놀려 대는 소리를 귓가에 들었을 때 현대의 계시를 간청했던 자신의 기도를 생각했다. 그는 동료들을 떠나 어떤 말일성도 가정으로 들어왔고, 상처가 회복되자 복음의 구도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였으며 나를 크게 신뢰하여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나는 장로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곧

그들은 정직하며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교묘한 거짓말장이이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전투를 벌인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에게 지독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특히 감동을 받았다.

그는 물몬경을 배우던 때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물몬경의 진실성과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인가에 관하여 내 마음에 얼마나 자주 의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의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몬들은 진실한가, 나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결심하자, 오하이오주에서 최초의 교회 개종자의 한 사람인 아이작 몰리에게 말했다.

1851년 1월 27일 한겨울에 몰리 형제는 “팔에 도끼 자루를 끼고 나무 한 짐을 하려고 막 나가던 참이었다.” 몰리 형제는 “이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하고, 그 도끼로 근처 호수의 두꺼운 얼음을 깬다. 그리하여 단은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 이후의 23년 동안은 매우 바빴다. 그는 농사를 지어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과 교역을 하고, 칠십인에 성임되고 헤리엇 에밀리 콜튼과 결혼하였으며, 브리감 영이 샌피트 군에서 멕시코인들을 상대할 때 그의 통역자로 활동했고, 겨울 폭풍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손수레 개척자들을 구출하였고, 교회의 회원이자 정보 관리로서 인디언들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계속했다.

그후 1874년에 그는 브리감 영의 사무실로 불러 가서 멕시코로 선교 사업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 부름이 언젠가는 오리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소망했으며 또한 두려워 했습니다”라고 그는 솔직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의 선교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그와 브리제는 부름을 받고 준비하라는 명을 받았다. “영 형제가 번역된 물몬경의 발췌문을 갖고 싶다고 말”했으므로 그들은 “연구하고 번역 준비를 시작했다.”

두 사람 다 스페인어를 사용했으나, 다니엘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주민이 우리를 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종종 생각했다.” 몇 달 후에 브리제 형제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밀리튼 지 트레요였고, 필리핀 군도에서 교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유타로 온 사람이었다. 그는 곧 침례를 받았고, 다니엘의 도움과 지원으로 물문경의 발췌문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1875년에 다니엘은 그들의 선교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영 대관장에게 보고했다. 영 대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니엘은 스페인어 발췌본의 첫 판을 인쇄할 비용 500불을 마련했다.

후에 영 대관장과의 대화에서 다니엘은 그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 당국이 만족하도록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시험을 제안했다. 그들이 어떤 책을 선택하여 트레요 형제가 한 구절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다니엘은 스페인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원문을 보지 않고서 다시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이었다. 영 대관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총관리 역원들이 스페인어에서 다니엘이 번역한 책을 받아들였을 때, 당시의 대관장단의 일원이었던 조지 에이 스미스 부대관장은 “웃으며 ‘나는 원문보다 존즈 형제의 문체를 더 좋아합니다. 언어가 더욱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번역에 관한 다니엘의 유일한 경험은 아니었다. 그는 이같이 말한다.

“인쇄를 시작할 때 브리감 형제는 그것의 정확성에 대해 내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매우 염려되었으므로 나는 실수가 있으면 [우리가 인쇄물을 교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내게 보여 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트레요 형제의 원고는 현대 문체의 언어로 씌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에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면, 그는 반드시 내게 동의하였습니다. 그는 종종 내가 빈틈없는 비평가이며 그보다 오히려 스페인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는 실을 가만히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감각을 이마의 중심부에서 느꼈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마치 이마에서 작은

매듭이 빠져 나가는 것처럼 매끄러움이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잘못을 발견하든 못하든 나는 바로 그곳에 잘못이 있다고 확신했으므로 내 동반자에게 보여 주며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똑같은 경우가 생길 때까지 계속해 나갔습니다.”

1875년 9월 다니엘은 그의 아들 윌레를 데리고 제임스 지 스튜어트, 힐라맨 프랫, 로버트 에이치 스미스, 암몬 엠 테니, 안소니 더블류 어빈스와 함께 멕시코로 향했다. 그들은 출판물인 “물문경 발췌본” 2000권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갔다.

지방 관리들을 상대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후 그들은 치와와에서 공식 모임을 가져도 좋다는 승락을 받았다. 1876년 4월 8일 멕시코 내에서 열린 최초의 교회 모임에서 약 500명의 무리에게 설교를 하였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밖에도 몇 번 시도한 후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와 1876년 7월 5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다니엘은 1876년부터 1877년까지 다시 트레요 형제, 프랫 형제, 스튜어트 형제와 함께 멕시코에서 두번째 선교 사업을 했다. 루이스 개프와 조지 레리도 함께 봉사하였고, 개종자 다섯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

1879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세 대처 장로는 스튜어트 형제와 트레요 형제를 동반자로 하여 공식적으로 선교부를 개설했다. 1913년과 1926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선교부는 그 때부터 운영되어 왔다.

물문경의 최초의 완전한 번역은 트레요 형제와 스튜어트 형제에 의해 1886년에 끝났다. 1907년부터 1931년까지 선교부장을 역임한 레이 엘 프랫 선교부장은 에드워드 벨데래스의 도움을 받아 이 번역판을 개정했다. 벨데래스 형제는 결국 교회의 스페인어 번역부장이 되었으며, 1949년 경에는 새로 인쇄할 목적으로 프랫판을 수정했다. 두번째의 개정은 1969년에 시작되어 벨데래스 형제에 의해 1980년에 완성되었는데 최근에 출판되었으며 현재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모든 선교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충실하고 순종적인 주님의 종이었던 미주리주의 고아 다니엘 웹스터 존즈가 시작한 그 사업은 전세계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의 인생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나는 그 책을 불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돈 빈센초 데 프란체스카



아래의 이야기는 프란체스카 형제의 놀라운 개종에 관한 기사로서, 임프르브먼트이라 1968년 5월호, 4-7페이지의 기사와 프란체스카 형제가 쓴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편지는 교회의 기록 보관소에서 보관되어 왔으며, 필자가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40년간의 노력에 관한 기사이다. 프란체스카 형제는 1951년 스위스-오스트리아 선교부의 사무엘 이 브링허스트 선교부장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1910년 2월 추운 날 아침 뉴욕시에서 일어난 일을 회상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아침 이태리 예배당의 수위는

목사에게서 온 편지를 내게 전해 주었습니다. 본당의 일에 관해 의논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가 몸이 아파 누워 있으므로, 나에게 그의 집으로 와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항구 부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강한 해풍이 불어와 재가 가득 담긴 통에 놓여 있는 책의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장의 겉모습과 제본 상태를 보고 나는 그것이 종교 서적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나는 그쪽으로 가서 책을 들고 통에다 툭툭 쳐서 재를 털어 냈습니다. 그 책은 영어로 씌어진 책이었으나 표지는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페이지가 넘어가자 나는 급히 엘마, 모사이야, 몰몬, 모로나이, 이사야, 레이맨인이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가 전에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나는 부근에서 샀던 신문지로 그 책을 싼 후 목사관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한 후 나는 그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그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누구일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일까? 어쩌면 다른 이사야일까?

집에 돌아와 창 앞에 앉은 나는 그 책에 씌어진 내용을 알아내고자 애썼습니다. 찢어진 책장을 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자, 나는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기록된 종교 서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겉표지와 속표지가 찢겨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그것이 참된 책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인근 약국에서 액체 세탁제와 탈지면을 산 다음 페이지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남은 페이지를 읽은 나는 빛과 지식을 받았으며, 이 새로운 계시가 나온 근원에 대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읽고 또 읽었으며 거듭 다시 읽고 나서, 그 책이 구속주의 다섯번째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은 채 그 책을 손에 들고 모로나이서 10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의 책인지, 그 책이 훌륭하고 참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사복음서를 설교할 때 거기에 적힌 말씀을 활용해도 되는가에 대해 내게 알려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몸이 바닷 바람처럼 차가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귀하고 특별한 것을 찾았을 때처럼 기쁨이 온 마음에 가득해지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으며 그 책은 나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나는 본당에서의 임무를 계속 했으나, 내 설교에는 이미 그 책의 새로운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회중들은 매우 흥미있어 했으며 차차 내 동료들의 설교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이 그들의 설교 시간에는 예배당을 떠나면서도 내가 연단에 서면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자, 내 동료들은 내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마찰이 시작된 것은 1910년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새로운 책에 기록된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마치자 나의 몇몇 동료들은 내가 말한 모든 내용을

돈 빈센초 데 프란체스카(삽입된 사진)는 1910년 뉴욕시에서 어린 사제로 있었을 때, 버려진 더러운 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꿔 놓았다.

공개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비난했으며,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징계 위원회에 나를 회부했습니다.

내가 이 위원회 앞에 나타나자 위원들은 아버지가 들려주듯 한 마디씩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그 책을 불태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관 형제들의 화합을 해쳤기 때문에 악마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책을 불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그것이 참된 것이냐고 여쭙어 보았고 내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주님의 대업을 수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 영혼 속 깊이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책의 출처가 내게 밝혀질 날이 올 것이며, 그 때가 되면 징계 위원회에서 엄숙하게 저항한 신앙의 결과를 즐길 수 있게 되리라고 느꼈습니다.

1914년이 되어서야 나는 다시 평의회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 교역자는 이전의 심문에서 오갔던 격렬한 말들이 혹시 나를 화나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나를 사랑한다고 은근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규칙이며 내가 그 책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책의 말씀을 부인할 수도 없었으며 그 책을 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책이 속한 교회가 내게 알려지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쁨을 가지고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하오! 그것으로 충분하오!”라고 그 교역자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평의회를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이전에 누리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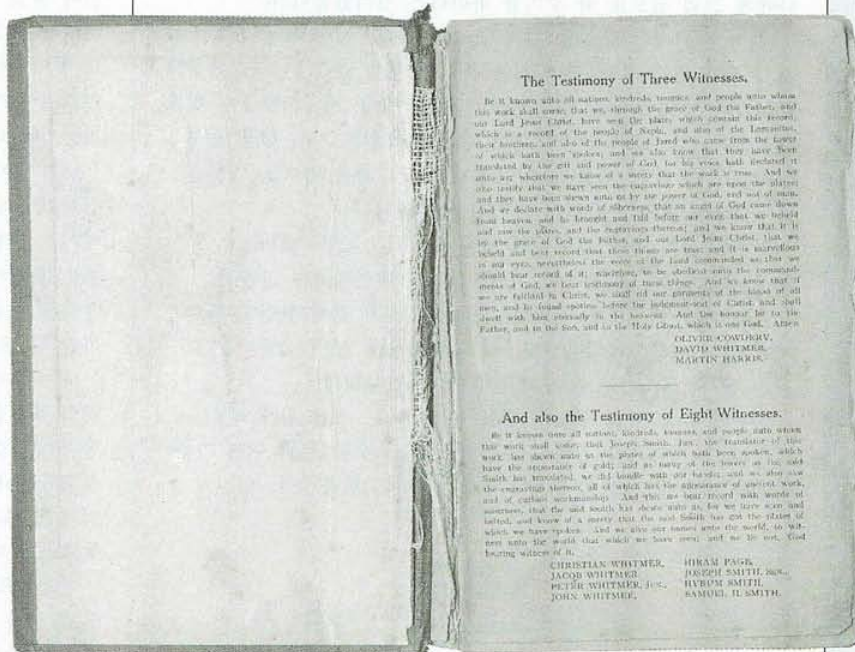
1914년 나는 고국인 이태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태리 군대에 복무하도록 징집되었고 프랑스에서 싸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중대의 몇몇 사람들에게 암문 백성의 이야기—어떻게 그들이 형제들의 피흘림을 거절하였으며 이렇게 큰 죄를 범하기보다는 무기를 묻어 버린 일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군복은 나를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다음날 나는 그의 사무실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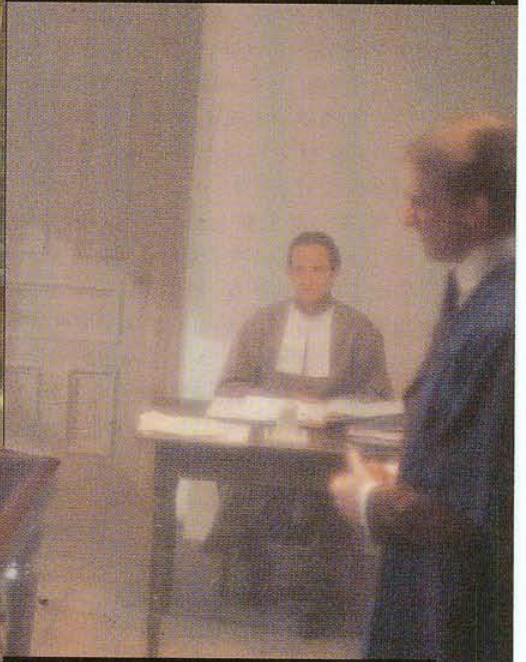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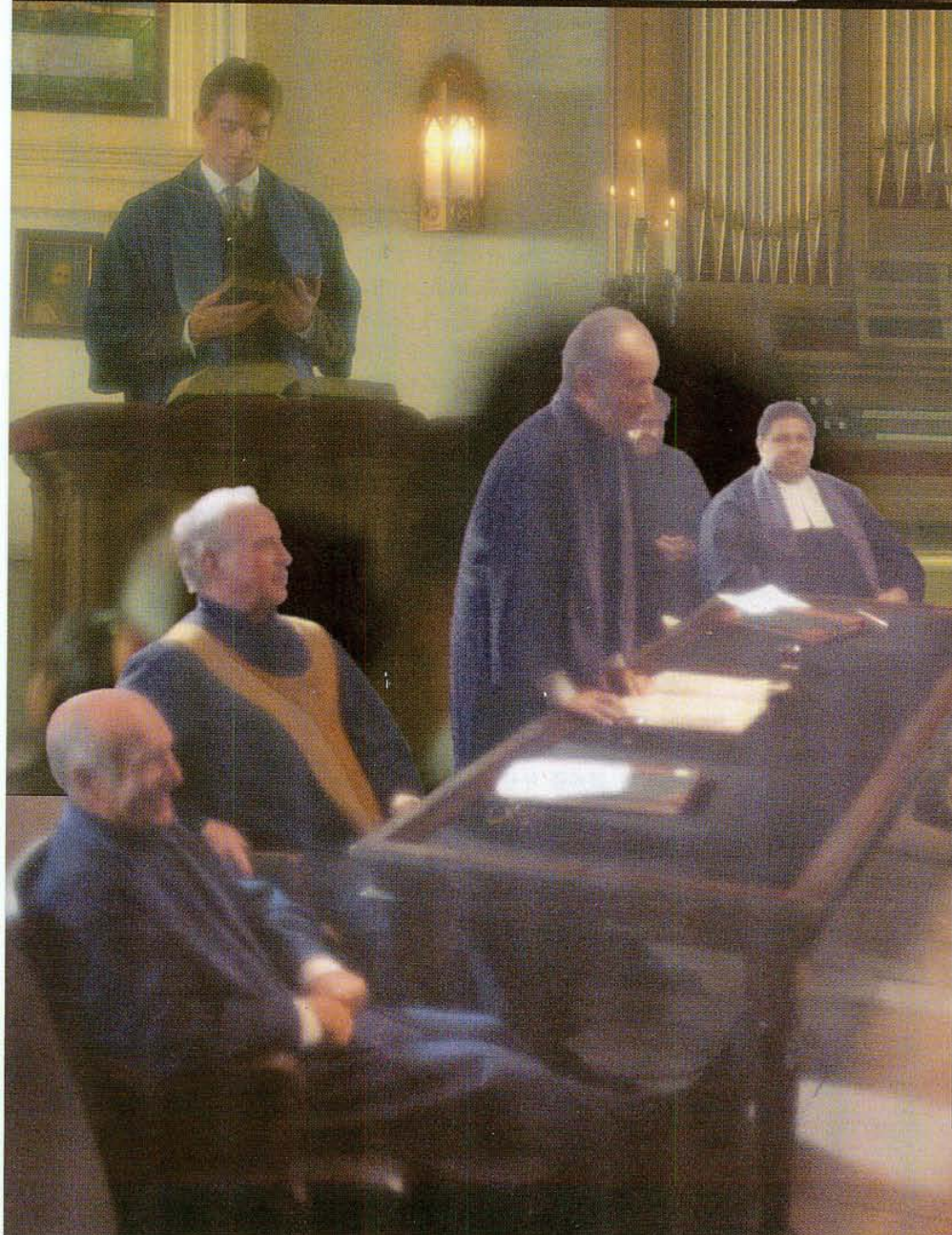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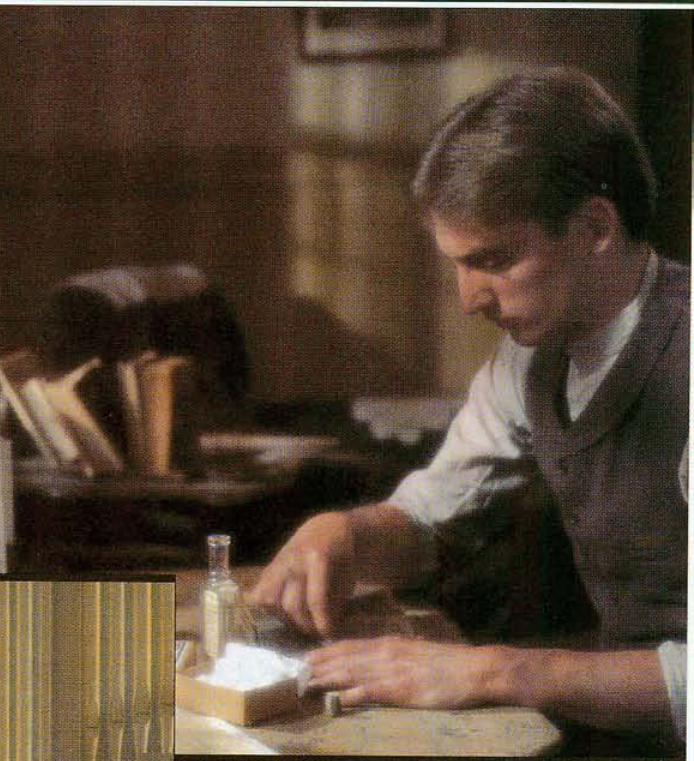
내가 말한 이야기를 그에게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어떻게 그 책을 습득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명령과 함께 10일 동안 빵과 물만으로 지내는 벌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뉴욕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이전의 교회 목사였던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와 교회 평의회를 중재해 주었고, 나는 마침내 평회원으로서 집회 참석이 허용되었습니다. 시험적으로 나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선교 사업을 가는 목사 한 사람을 따라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리는 이태리 이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경 번역의 오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내 동반자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에 관하여 내게

아래 : 프란체스카 형제가 뉴욕시에서 발견한 책 사진. 다음 페이지 : 프란체스카 형제의 생활 장면을 묘사한 사진; 새로 발견한 책을 정성스럽게 깨끗이 함; 책에 있는 가르침을 토대로 설교를 함; 징계위원회 앞에 나타남;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이태리 주민들 가르침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미대륙 배성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디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배웠느냐고 물었으므로 나는 내가 발견한 그 책에 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좋았지만 내 동료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 평의회에 나를 보고했고 그들은 다시 나를 교회에서 쫓아 냈습니다.

나는 그 후 곧 이태리로 되돌아왔습니다. 1930년 5월에 내가 무슨 자료를 찾기 위해 불어 사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몰몬”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단어를 주의깊게 읽은 나는 몰몬 교회가 1830년에 세워졌으며 이 교회가 프로보에 있는 대학(유타주 브리감 영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대학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책에 관한 자료와 빠진 페이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주 후에 나는 내 편지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에게 전달되었다고 쓰인 답장을 받았습니다.

1930년 6월 16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내 편지에 대한 답장과 이태리어판 몰몬경을 한 권 보내 주었습니다. 그는 영국 리버풀에 본부를 둔 유럽 선교부의 선교부장인 존 에이 윗소 장로에게 내 요청을 전하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윗소 장로는 내게 편지를 보냈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와 금판, 몰몬경의 출현에 관한 소책자 한 권을 내게 보내 주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잿더미 속에서 찾은 찢어진 책의 나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932년 6월 5일, 윗소 장로는 나에게 침례를 베풀기 위해 나폴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시칠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팔레르모 경찰은 내가 그 섬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해에 윗소 장로는 나에게 요셉 스미스 소책자를 이태리어로 번역하여 1000부를 출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번역 원고를 인쇄업자인 요셉 가시오에게 보냈더니, 그는 그것을 캐톨릭 주교에게 가져 갔습니다. 주교는 그에게 자료를 파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그 인쇄업자를 고소했으나, 법정에서는 책자 원본을 돌려 주라는 지시를 그에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윗소 장로가 1934년에 선교부장에서 해임되자 나는 그의 후임인 조셉 에프 메릴 장로와 서신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레니얼 스타지를 내게 보내도록 추천해 주었으므로, 나는 1940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그 정기 구독이 중단될 때까지 그것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1937년 1월에 메릴 선교부장의 후임인 리차드 알 레이먼 장로는 어느 날 휴 비 브라운 장로와 함께 로마에 들르겠다는 편지를 내게 보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 침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편지 배달이 늦어져서 그 편지를 제시기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949년까지는 교회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충실한 신봉자로 남아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는 표준 경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몇 개의 장을 이태리어로 번역하여 “안녕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새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친지들에게 보냈습니다.

1949년 2월 13일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에 있는 윗소 장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윗소 장로는 1950년 10월 3일에야 답장을 보내 왔으며 노르웨이에 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장문의 답신을 보내어 내가 하루 빨리 침례받도록 도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왕국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과 종임을 스스로 입증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윗소 장로는 스위스-오스트리아 선교부의 사무엘 이 브링허스트 부장에게 부탁하여 시칠리아로 가서 나를 침례하게 하였습니다.

1951년 1월 18일 그 섬에 도착한 브링허스트 부장은 이마라자에서 내게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칠리아에서 베풀어진 최초의 침례였습니다. 그후 나는 1956년 4월 28일에 스위스 베른에 있는 성전에 가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 책의 출처가 내게 밝혀지고 내 충실한 신앙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온 것입니다. □

(편집자 주: 프란체스카 형제는 1888년 9월 23일에 출생하여 1966년 11월 18일에 사망함, 그는 강한 신앙을 가졌으며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수행했음.)

절대적인 진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1895~1985]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엘로힘은 살아 계십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지상의 모든 인간의 자녀들은 그와 그의 속성과 권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살아 계십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부인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의 형상과 권세와 속성은 인간의 견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견해 하나만으로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능하신 분이며, 창조주이며 유일한 참된 삶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지식인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며, 믿지않는 자는 그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 계시며 그의 백성의 운명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아무도 그 진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스위스의 시계공이 재료를 손으로 조립하여 시계를 만들었는데도 그 시계가 캘리포니아주 사막의 모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계를 발견한 사람들은 스위스에 가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시계공도 본 적이 없으며, 시계가 제작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무지나 경험에 전혀 관계없이 시계공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시계는 거짓말로 "시계공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진리를 변경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재료를 손수 사용하여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회원 선교사가 됨

캐롤 와그너 터틀

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성신의 인도하심과 물몬경에 관해 말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

회원 선교사 주일학교 반 첫 시간에 교사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점점 기분이 언짢아졌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그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 선교부의 개종 침례 수의 80퍼센트는 회원의 구도자 소개 덕분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중 한 가지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으며,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면 왜 나는 마음이 불편했을까? 왜 나는 비회원에게 물몬경을 한 권 주거나 내 간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거나 또는 선교사를 만나도록 누군가를 초대하는 데 그렇게 지나치게 소심할까?

첫 시간 이후, 실망을 느낀 나는 왜 내가 비회원에게 물몬경을 주고 복음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선교사와 만나도록 비회원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는 일을 두려워하는가를 이해하고자 애썼다.

나는 두려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

올 첫 단계를 거쳤다.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동안 내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6주 과정이 끝날 때까지 나는 물몬경 일곱 권을 주었으며 비회원 두 사람에게 나의 간증을 전했고 이웃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선교사를 만나게 했다. 다음은 내가 두려움을 맞서 극복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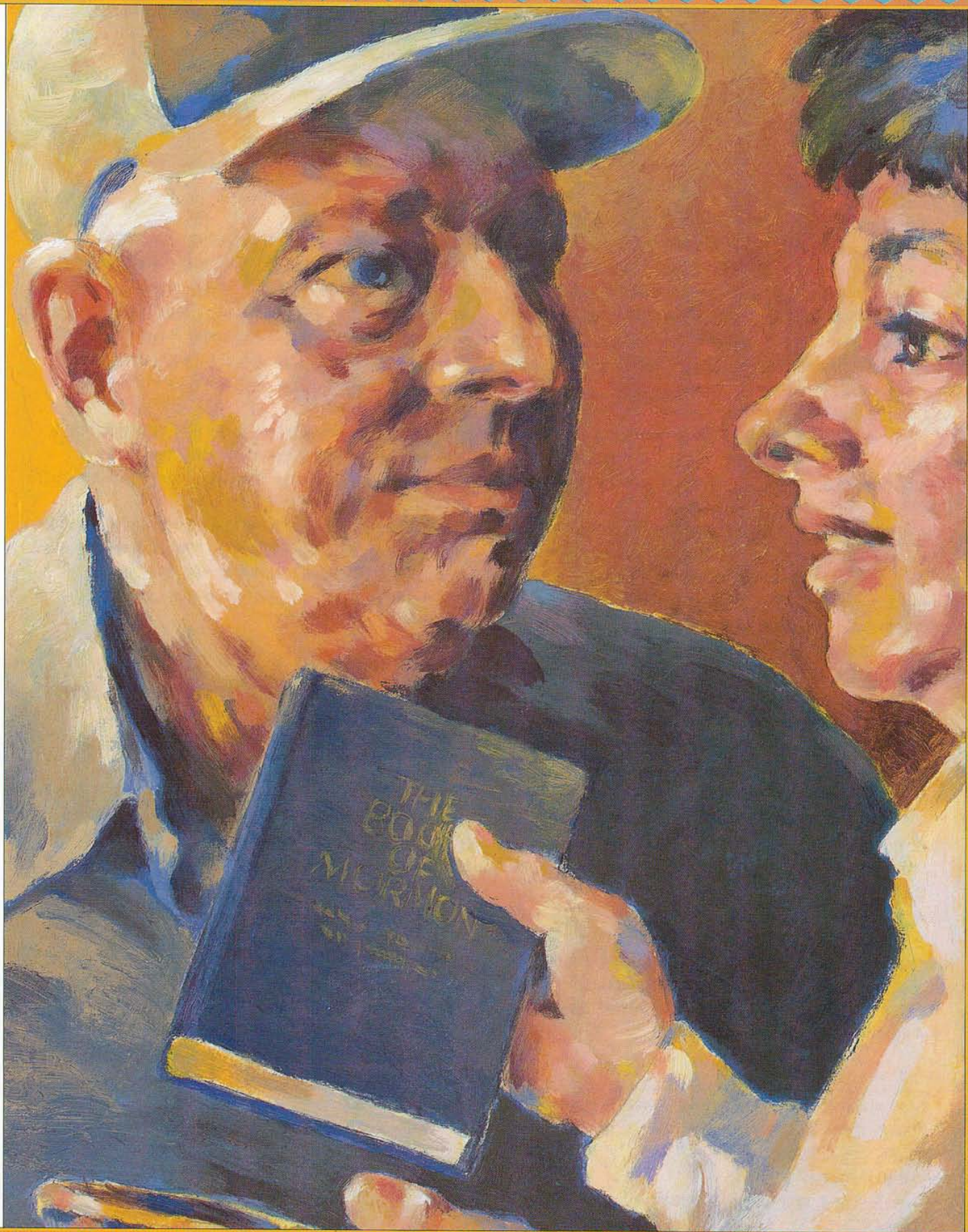
비회원에게 물몬경을 줌

“내가 비회원에게 물몬경을 나누어 주기를 두려워한 이유 :
“종교는 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만 그들의 교회 가입뿐이며 우리의 우정은 사실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지나치게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우정을 해칠지도 모른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며 그들의 생활에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태도가 변화가 왔다. 나는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어 교회에 가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대신, 내가 진실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보다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적극적이 되거나 우정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스펜서 킴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에게서 영생을 빼앗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554페이지)

회원 선교사 반의 첫 주일에 교사는 우리가 다음 주에 물문경을 한 권씩 주겠으며 매주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하라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그 목표를 받아들였다. 주중에 나는 누구에게 물문경을 줄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늙은 남자를 한 사람 고용했는데, 그가 온 첫 날부터 나는 그가 훌륭한 인품의 정직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일한 마지막 날 아침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고, 이 사람에게 물문경을 주어야 한다는 확신을 받았다. 나는 또한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관한 성신의 인도를 받고 그 책에 관하여 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 나는 내 간증을 적은 물문경을 준비하였고 우리가 만날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날 저녁 그가 일을 마쳤을 때 나는 그를 청하여 자리에 앉게 한 다음 물 한 컵을 주며, “물문을 왜 물문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 혹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이것은 회원 선교사 반에서 배운 접근 방법이었다.)

그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므로 나는 “제가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좋습니다, 해보시죠”라고 대답했다.

물문경에 관하여 15분 동안 정답게 이야기를 한 후 나는 준비한 물문경을 주면서 그 책을 읽어 보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깊게 그 책을 읽는다면 내가 말한 대로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으나 아직까지 친구로 지낸다. 그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며 나 또한 내가 지나쳤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간증을 나눔

“내가 비회원과 함께 간증을 나누기를 두려워한 이유 :

“그들은 간증을 들을 준비가 안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나는 거절당했다는 기분이 될 것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간증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회원 선교사 반의 둘째 주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막 첫 아이를 낳은 비회원 친구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한 나의 간증을 함께 나눌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주님을 믿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간증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느낌을 갖게 된 놀라운 경험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문경을 줌으로써 후에 확인된 바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여 읽기로 동의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각 개인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를 사랑하며, 친구로 지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목소리를 높이면, “너희가 말해야 할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말할 바를 얻게 될 것이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교성 100 : 5~8 참조)

친지를 청하여 선교사를 만나게 함

“비회원을 초대하여 선교사를 만나게 하기를 두려워한 이유 :
“그들이 거절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이 선교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기분 좋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드디어 어떤 이웃을 우리의 가정의 밤에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선교사에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들도 인생에 대한 정열과 가정의 행복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보통 젊은이들이란 것을 알게 되기를 희망했다.

다과를 든 후에 우리의 대화는 복음에 관한 조용한 토론으로 발전했다. 한 시간 반이 지난 후 우리의 이웃은—지금도 우리와 친구이다—안에 우리의 간증이 적힌 물문경을 받아 가지고 떠났다.

회원 선교사 반의 마지막 주 중에는 또 다른 경험을 했다. 나는 각각의 경험을 통해 사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함께 나눔으로써 맛보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놀라운 느낌을 보다 자주 누리고 있다. □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니파이삼서 19장에는 니파이인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베스 티 스탕프,
세미나리 교사,
미드내포어, 앨버타

산 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태복음 6:5~13 참조) 그는 니파이인들에게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니파이삼서 13:5~13 참조)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면 바로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구세주와 신세계에서 그의 성역 기간에 항상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삼서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18, 24~25절 참조) 이 기이한 행동에 대한 열쇠는 아마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저들이 내게 간구함은 내가 저들과 함께 함이니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복지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동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19~23절 참조)

그가 그들의 면전에 있는 동안,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신회의 각 구성원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몇몇 회원들이 그리스도와와의 특별한 우호 관계가 발견되었다고 느껴 그리스도에게 직접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고 맥콩키 장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해야 하며, 그분은 합당하다고 보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회의 한 분을 택해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됩니다. 맥콩키 장로는 또한 우리가 신회의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브리감 영 대학 1981~82년 노변의 밤 및 영적인 모임 말씀, 프로보 : 브리감 영 대학, 1982년, 97~103페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의 은사, 위안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는 기억의 은사와 같은 성신의 특별한 은사를 간구할지라도 성신에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지휘자이시고 초월자이시며 궁극의 권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 생각할 때 전세에 대해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지지 투표를 위해 제안되었을 때, 무시되는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원했으나,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는 모든 영예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누가복음 11:2 참조)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봄이면 나는 정원의 많은 면적에 호박, 토마토, 오이 그리고 특히 멜론과 같은 덩굴 식물을 심는다.

그것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므로 나는 좋은 위치를 찾아 흙을 잘 일구어 놓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날씨와 토양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곧바로 씨앗이나 묘종을 심고,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나는 물을 주고, 풀을 뽑아 주고, 첫번째로 나는 잎, 첫번째로 피는 꽃, 첫번째 맺힌 열매를 보는 등 그것을 둘러본다.

밭에 재배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배운 한 가지는 많은 덩굴 식물들이 사방으로 아주 멀리까지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들은 휘감아 타고 오르기도 한다. 어느 해에는 호박 덩굴이 담을 타고 옆집의 사과 나무에까지 올라갔다. 그 해 가을에 빨간 사과 사이에 노란 호박이 걸려 있었다.

어느 해는 나는 여러 종류의 큰 호박을 심었다. 덩굴이 담을 타고 자라 아주 거대한 호박이 열리게 되었다. 난 수확기에 담에서 그 큰 호박들을 들어 내느라 등을 다칠 뻔했다.

덩굴은 아주 흥미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땅을 가로 질러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고, 담이나 나무를

타고 오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덩굴의 길이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뿌리의 기능을 능가할 수는 없으며, 덩굴은 그것들이 붙어 있는 물건의 높이만큼 높이 자랄 수가 있다.

넓은 땅에 호박을 심고 충분한 물과 햇빛과 거름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호박은 아주 멀리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그러다 쓰레기 더미근처까지 뻗으면 덩굴들은 쓰레기 더미를 타고 오르지만 그보다 더 높이 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덩굴들은 나무 그루터기나 버려진 차를 타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이 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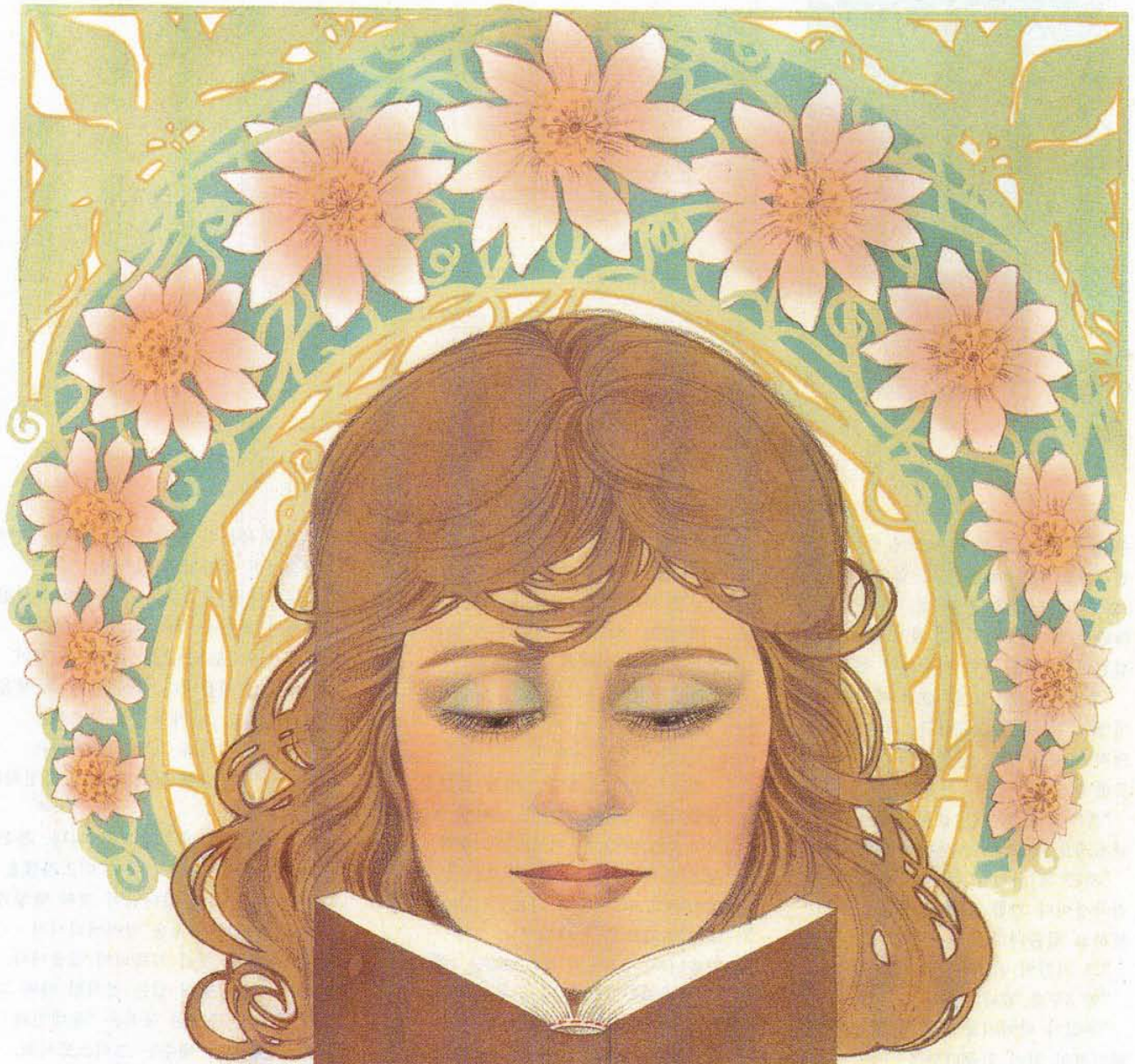
어떤 면에서 사람은 덩굴과도 같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능가해서 더 자랄 수는 없다.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높이 자랄 수는 없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보화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세속적이 된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의지하고 복음의 교리와 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면, 영의 빛으로 따스하게 되고 생명수에 의해 양육된다면, 우리는 끝없이 위로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덩굴

래리 힐러





사람들에게
 물몬경을
 읽도록
 권하는 이유

제이 이 젠슨

내 가 선교부장으로,
 다시 선교사 훈련원
 지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
 번 되풀이한 한 가지 경험은
 물몬경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요셉 스미스의 말이 진리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11페이지) 때때로 한 선교사가 내 옆에 앉으면 접견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요즘 선교 사업에 대한 정열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것을 별로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님의 느끼신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나는 부탁하곤 합니다.

“저는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성이나 기쁨 또는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었습니까?”

“약 3주쯤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모든 선교사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시간에 일어나며 매일 경전을 읽습니다. 현재는 구약전서를 읽는 중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며, 동반자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경전 연구의 일부로 몰몬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 주 동안 어떤 일을 해보고 나한테 전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복음 연구 프로그램의 정규 공부 이외에 매일

몰몬경을 적어도 한 장씩 읽고 연구해 보십시오.” 이 주일이 지나 그 선교사는 전화를 하여 모든 것이 좋아졌으며, 그가 잃어 버렸다고 생각했던 영적인 정열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선교사 도구

선교사들의 영적인 느낌과 몰몬경 연구와의 독특한 관계는 나에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영적인 발전은 교리가 들어 있는 경전에 관한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104페이지) 그밖에 어느 곳에서도 몰몬경에서처럼 그렇게 명확하고, 극적이며, 효과적으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의 어느 백성들에게나 주신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며 설득력 있는 선교사 도구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몰몬경입니다.”(연차 대회, 1961년 4월)

몰몬경의 기록과 보전과 번역을 둘러싼 기적적인 상황은 자체가 그 책과 그 메시지의 중요성에 관한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교리와 성약 20편 8~16절에 있는 몰몬경에 대한 설명에서 주님은 왜 그 책이 읽을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책에는

온전한 복음이 들어 있고, 다른 경전의 진실성이 증언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고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거룩한 사업을 하기 위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은 그 책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승영과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정죄에 필요한 것을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몰몬경 자체의 서문에는 그 책이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고대의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종석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로서의 몰몬경의 효용은 그 존재 자체에도 일부 근거가 있습니다. 몰몬경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몰몬경은 이 말의 사업의 종석을 뜻합니다. 종석은 아치에서 다른 모든 돌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떼어 내면 아치는 무너지고 맙니다. 몰몬경에 대한 간증의 종석이 제자리에

확고하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으며 현대 계시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고대에서처럼 오늘날에도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요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어떠한 책보다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몰몬경의 말씀에는 동기를 부여하고 신성하게 해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인생을 변화시킬 때 경험하는 것을 엘마는 경험했습니다. 엘마가 “니파이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의 임무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자만과 교활함과 불화를 막으려 하였으니, 그는 오직 순수한 간증으로써만 저들을 다스려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엘마서 4:19)

교리의 이해

엘마 전에 나는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 어떤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십일조를 바치고, 모임에 참석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교리를 이해할 때 동기가 부여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엘마 역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그 때까지 그들이 겪은 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나 그밖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침을 알았으니, 이로써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엘마서 31:5)

메사에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니파이서 29:2) 그들은 몰몬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희생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믿고 그 회원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잘 알아 봄

여러분은 등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때때로 발 아래 펼쳐진 계곡을 보기 위해 잠깐 쉽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전망은 좋아집니다. 계속 산을 올라가면, 멋진 풍경을 더욱 잘 알아 볼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최상의 전망과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비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비교하여 볼 때,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더욱 잘 알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은 이같이 확인하셨습니다. “니파이 관에는 많은 것이 새겨져 있나니, 이것은 나의 복음을 더욱 잘 알아 볼 수 있게 하느니라.”(교성 10:45) 공의와 자비의 율법, 인간의 타락과 자유의지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 사탄의 실재와 사탄이 백성과 국민에게 작용하는 방법; 신앙과 희망과 자비의 원리; 침례의 목적과 필요성과 어린 아이의 구원; 부활의 교리 등등 몰몬경은 성경에서보다 더욱 잘 알아 볼 수 있고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들려주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가를 더욱 잘 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추구하는 자세로 몰몬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일의 사업의 진실성과 실재성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같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물문경]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모로나아서 10:4)

이것은 참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로나이의
 약속을 시험하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문경은 이 말일의

하나님의 사업을 알기 위해 이미 지상에
 왔거나 앞으로 올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종석으로서의 진진적인 선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물문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었음을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

신앙이 있어야 함

물몬경에는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고양시키고
격려하는 원리가 거듭 나타나 있다.



아더 알 배셋

신앙과 소망과 사랑의 세 가지 영원한 원리는 보통 신약전서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을

연상시킨다. (고린도전서 13장 참조)
그러나 그것들은 물론경에도 거듭
나타나 있다.

신앙

예언자 엘마와 반 그리스도인 코리호어와의 대결에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된다. (엘마서 30장 참조) 코리호어는 엘마가 증명할 수도 없는 신앙에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코리호어는 자기 자신의 삶은 보다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대결은 신앙에 관한 토론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개념을 소개한다.

나는 사랑이 그러한 만큼, 신앙도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의문을 품어 왔다. 사랑할 대상도 없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들린다. 또한 신앙의 대상이 없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다. 보통 신앙은 어떤 존재나 사물을 향해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이 원리를 토론할 때 언급한 그리스도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존재는 믿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막연한 개념일 수도 있겠으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신뢰를 갖고 있다.

시작하기 위해, 신앙과 신뢰를 비교해 보자. 예언자들이 신앙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그들이 말한 것의 완전한 의미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이란 말을 삽입하는 것이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성도의 생활의 첫째 원리이다. (신앙개조 제4조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고, 모든 진리를 구현하시며, 그리스도인이 활동할 빛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다.

신앙에 근거한 가치 체계

엘마와 코리호어의 대결에 관한 기사를 읽는 동안 이것을 명심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흥미있게도 코리호어가 제시한 모든 논쟁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 반하는 논법이었다. 두 사람 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엘마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고, 코리호어는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코리호어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재능에 따라 변영하며 능력에 따라 무엇이든 정복할 수”(엘마서 30:17) 있다는 것이다.

니파이가 제안한 대로 경전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 비교해 보는 것은 늘 유익한 것이다. (니파이일서 19:23) 그러한 기사를 읽는 동안 우리 자신의 생활을 검사한다면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행복을 구하는가? 혹은 자신의 직업에서 행복을 구하는가? 혹은 자신의 소유 재산에서 행복을 구하는가? 우리는 엘마처럼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엘마는 신앙의 의미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배도한 조람인들과 함께 하는 동안 (엘마서 32장 참조) 그는 우리가 신앙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 것 같다.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영원한 원리처럼 보인다. 우리가 이 생을 떠나 그리스도의 면전에 설 때 온전한 지식으로 그분의 면전임을 알 것이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을 믿는 신앙에 의해 일부 결정될 것이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나 그를 따르지 않은 악마에 관해 말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야고보서 2:19)

그러나 그분을 따르게 되면, 지식과 신앙은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존재의 모든 면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얼마 동안은 불완전할 것이다. “이 빛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함이 곧 너희의 지식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너희는 신앙을 버려 두지 않아야 하나니,”(엘마서 32:35-36)

어느 누구도, 비록 최고의 학자일지라도, 신앙과 관계없이 지식만을 근거로 하여 행동할 수는 없다.

말없는 설교

엘마의 설교는 모로나이(이더서 12장)와 몰몬(모로나이서 7장)의 설교와 함께 신앙의 원리에 관하여 많은 깨달음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의 생활은 보다 큰 깨달음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십 년 이상 계속된 전쟁 때 무장한 니파이 군대의 대장이었던 모로나이가 있다.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신앙으로 인해 폭풍우를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 레이맨인 예언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노력하다가 백성들의 적 가운데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는 교회의 적들이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나 대담하게 일어섰다. 또한 주님의 면전에 섰던 예언자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으로 산을 옮긴 야렛 동생은 신앙의 위대한 모범이 된다.

이론과 설교가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생활은 더욱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몰몬경에는 충실한 남자와 여자들에 관한 기사가 가득 실려 있다. 현대의 상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들의 생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주님과 그의 방식의 기초 위에 보다 견고하게 세우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영에 깊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이들 경전의 연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소망

세 가지 원리 중에서 두번째인 소망은 몰몬경 성도들의



생활에서 신앙의 동반자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가히 짐작할 수도 없는 위안과 평화가 있다.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영혼을 가득 채운다. 물론이 말한 것처럼, “어찌 너희가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서 신앙을 얻을 수 있겠느냐?”(모로나아서 7:40)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발전할 때, 소망은 증가한다. 모로나이는 소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진대 더욱 아름다운 처소 곧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리라는 소망을 가지라 하였으며, 이 소망이야말로 신앙에서 비롯하여 인간의 영육에 닿아 되어 저들로 분명케 하고 확고하게 하며 늘 선행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이더서 12:4)

모로나이의 말은 소망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오게 된다. 또한 굳건하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영육에 안전감의 근원이 된다. 소망의 위력은 아마 그 반대인 절망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오늘날 주위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본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사회에서 물러나거나 속속 대두되는 메시아를 자처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따른다. 그러한 신앙은 곧 더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 준다. 우리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 살고 있으며 종종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

살아 있는 죽음의 형태

다른 사람을 믿거나 자신의 환경을 믿던 신앙을 잃어 버린 사람들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된다. 그런 식의 소망은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과 관련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망이 없으면 해볼 의욕을 잃게 된다. 정신 병원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근원과 가치 감각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염려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체 기능이 중지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살아

있는 죽음의 형태를 겪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술이나 마약에 빠진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과는 얼마나 다른가! 그는 주위 사람의 짐을 주님의 도움으로, 기꺼이 자신이 지려 한다. 그는 낙천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쁨을 맞본다. 아마도 엘마 이세의 경우보다 이것을 더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반항적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갑자기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영원한 고통을 겪고 큰 절망에 빠졌다. 그런 다음 좌절하여 혼자 놀라움에 질려 있던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부친의 말씀을 회상했다. 구원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움을 느꼈고 마음이 고요해졌다.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고통보다 너 쓰며 피로운 고통은 없었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 말하노니, 나의 아들이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엘마서 36:19-21)

세상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주님과 생의 목적에 관한 그분의 설명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단히 도울 수 있겠는가? 엘마가 기쁨이란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한 것은 내게 의미가 크다. 그것은 물론경의 핵심 단어이며, 신약전서의 모든 복음 특히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이다. 나는 그것이 소망의 원리의 중요 부분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 평화-평강의 왕의 선물처럼 오는 평화와 같은 다른 개념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쓸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때 말씀하신 위안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복음 교제에 사용된 소망이란 단어를 심사숙고할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

물론경에는 헛되고 무의미한 신을 믿는 백성들의 기사가 가득

실려 있다. 성도들은 행복을 누리며 안정되어 있을 때도 그들은 거듭 절망에 빠졌다. 그 책에는 거의 온갖 형태의 인간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아랫인의 기록에는 이웃과의 다툼, 인종, 편견, 종교적 박해, 전쟁, 정부의 부패, 자연의 재해, 그리고 실제로 인간에게 알려진 그밖의 모든 다른 문제를 비롯하여 가족 싸움과 대량 학살이 많이 나온다.

오늘날 전세계의 말일성도에게 이러한 기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물문경의 경험과 각자의 생활 경험을 연결해 볼 수 있다. 전세계의 많은 성도들은 전쟁의 파괴와 공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인종과 종교 분쟁을 겪은 사람도 있으며, 아직도 지진과 홍수 등의 천재로 집을 잃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도 있다.

선은 결국 승리함

이러한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문경에 있는 기사는 한 페이지에 들어 있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그들에게 소망과 마음의 평화와 낙천성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행복감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역경에 대항할 수 있고, 선은 결국 승리하며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절망과 비판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지도 모르지만, 성도들은 모든 고통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승산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도 계속 노력한다.

소망은 오늘날 제멋대로인 자녀들과의 어려운 문제에서 부모를 떠받쳐 주는 정신이다. 용기를 잃은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을 지탱해 주는 영이다. 소망은 전세계의 말일성도들이 인생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할 미래를 기쁨으로 내다보게 해주는 힘이다. 주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가진 니파이인들의 보고를 보고 우리는 그분의 재림시에 맞출 기쁨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을 통치하시고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 될 때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

사랑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도 사랑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원리일 것이다. (모로나이서 7:44 참조) 물문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고 정의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랑은...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다”(모로나이서 7:47)라고 지적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뜻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향한 사랑을 뜻한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보다 그리스도와 닮게 될 때,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분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이게 된다.

사랑의 속성

물문은 사랑이 없으면, 신앙과 소망도 그 의미를 잃는다고 말한다. 신약전서의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설교에서 똑같은 말을 하였다. (야고보서 2장)

물문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랑을 보인 사람들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버지들은 엘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준 작별의 설교에서 이 사랑을 느낄 것이다. (엘마서 36~42장) 선교사들은 엘마의 선교 사업과 기도에서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특히 엘마서 31:26~35 참조) 청소년 지도자들은 힐라맨이 아들들을 부르러 왔을 때, 이천 명의 젊은 용사들과 함께 한 경험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그의 편지에서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엘마서 56~58장 참조) 일반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절망한 중에도 그의 백성들에게 봉사한 그 사랑을 느낄 것이다. 서기와 계보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성스러운 기록을 요약하기 위해 끈기있고 주의깊게 일한 물문과 모로나이의 노력에서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신 주님께서 보여 주신 간단한 설명이다. (니파이삼서 11~28장 참조)

그분은 불쌍히 여기며 가르치셨다. 그는 이 백성들의 복리를 간구하는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다. 그는 그의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우셨으며, 병든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니파이인들의 슬픔을 치유하여 주셨다. 그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니파이인들에게 성찬을 주셨다. 이러한 일에서 우리는 그의 사랑의 특성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생활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숭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결심을 마음에 느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는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함께 하는 것을 본다.

주님의 영향

주님께서 니파이인을 방문하신 일을 주의깊게 공부하고 나면 물몬이 정의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로나이서 7:45)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고통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성도의 상징이 되는 친절함과 절투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며 참된 겸손을 본다. 성도는 쉽게 성내지 않는다. 성도는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참되게 사랑하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이 사랑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참으려 한다.

물몬은 구세주의 방문 이후의 시기에 대해 기록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

“도적이나 살인자가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혹은 다른 종족의 차별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한 덩어리가 되었더라.

“주가 저들이 행하는 대로 낱날이 축복하시니”(니파이사서 15~18)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함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오직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하고 신앙과 소망과 특히 사랑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몬은 당시의 백성들과 또한 우리에게 권고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일 때,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어다.”(모로나이서 7:48)

우리는 물몬경을 읽을 때,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지 스스로 자문할 수 있다. 읽고 토론하는 것은 틀림없이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목표가 시작된다.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고작 일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습득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먼저 신앙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필요를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질을 지닌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자질을 보다 온전하게 지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온유하게 간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질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의 은사이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복음대로 생활하며 자라고 성숙할 때, 우리의 생활에서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모로나이는 마지막 작별을 고할 때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마땅히 신앙이 있어야 하리니, 신앙이 있으면 소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요 소망이 있을진대 사랑이 또한 있을 것이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소망이 없어도 구원받지 못하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모로나이서 10:20~21, 32)

이것은 우리 시대를 위한 니파이의 기본 메시지처럼 보인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앙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을 따르라는 권고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 □

아더 알 배셋은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의 인문학 부교수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목적 : 제외되는 사람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배움

“**유** 법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는 질문을 받은 구세주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 : 36~39)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히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 행할 때, 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명은 분명한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다른 모든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도 우리에게 직접 본모기를 보여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에게 우리의 팔과 가슴을 열어 주기를 기대하신다.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믿음과 표준을 나누기를 사랑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우리는 주저할 수도 있다.

크리스틀 펫처는 이런 어려움을 당면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극복했다. 젊은 처녀 시절에, 그녀는 정변으로 인해, 현재의 체코슬로바키아인 고향을 떠나 독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교회에 대한 것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다. 후에 그녀는 미국으로 옮겨 갔다. 유타주에 살면서 그녀는 어떤 사람에게서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난생 처음으로 증오심을 느꼈다.

“나는 나의 조국이 침략받았을 때의 모든 두려움도 헤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에는 증오의 감정을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한다. “나는 이러한 감정이 그릇된 것임을 알았으나,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태복음 5장 43~44절을 읽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크리스틀은 이 구절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다. “나는 내 자신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를 원했으므로, 증오감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를 꼭 깨물고, 주님께서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다시 진지하게 기도했으며, 바로 증오심이 그녀에게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님이 영을 그녀에게 부어 주시며 그가 하시는 대로 사랑하기를 가르쳐 주심을 발견했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세주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두 그룹 사이에 구별되는 특색의 하나는 우리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그리하여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낯선 자, 벌거벗은 자, 병든 자, 죄수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경험을 토론한다.
2.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함께 읽고 토론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 51~74, 98~108, 160페이지에서 참고 자료를 참조한다.)

물몬경과 오늘날의 가정

다윈 엘 토마스

오 늘날 많은 가정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우리는 가정이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재난이 닥치리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나는 말일성도로서 물몬경의 메시지에 큰 위안을 받고 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사회에 관하여 오래 전에 쓰여진 기록이고, 그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각각의 관계에서 행해야 하는 바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책의 첫 부분에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레이벤의 낚시판을 구하기 위해 되돌아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많은 시간을 염려하며 지냈으나(니파이일서 5:6~7 참조), 새라이아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남편에게 불평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들들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의 안전을 염려했다. 또한 특히 뒤에 남겨 두고 떠나 온 온갖 편한 생활을 생각할 때, 광야에서의 생활이 몹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세 가지 면에서 반대한다고 말한다. (1) 그는 미혹되어 "환상에 젖은 사람"이다. (2) 그들은 "상속의 땅"을 잃었고 필경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3) 무엇보다 가장 슬픈 일은 "아들마저 잃"게 된 것이다.

이것은 큰 말다툼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리하이는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며, 새라이아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불평을 토하며 대꾸할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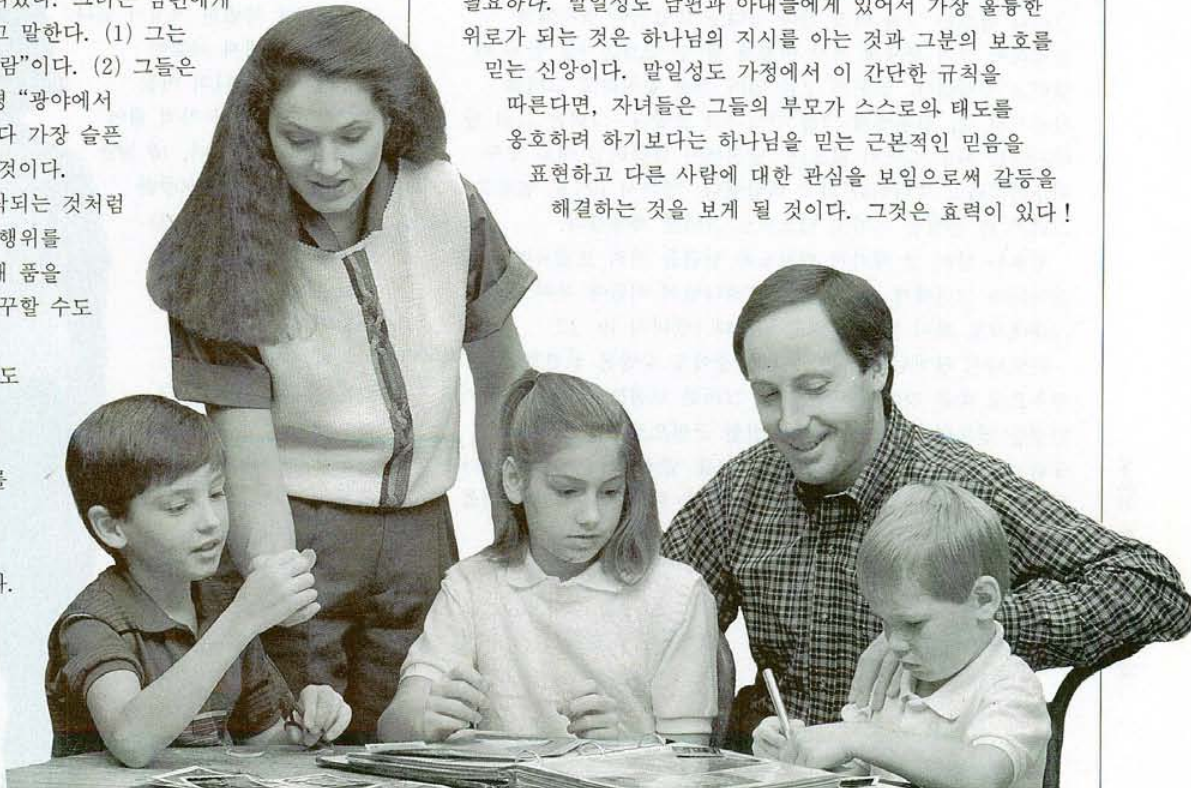
한쪽이 불평하면 상대방도 불평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유형일지 모르지만, 리하이는 아내를 위로하는 말로 대답한다. 그는 자신이 "환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후에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낚시판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보낸 것은 주님의 명을 좇은 것이고,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셨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고 온 것보다 더 큰 유산을 약속하셨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멸망하였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물몬경은 배우자가 불평할 때 그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은 변명이나 비난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이 불평할 때는 위로가 필요하다. 말일성도 남편과 아내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아는 것과 그분의 보호를 믿는 신앙이다. 말일성도 가정에서 이 간단한 규칙을 따른다면,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스스로의 태도를 옹호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효력이 있다!

물 문경은 다른 사회에 관하여 오래 전에 쓰여진

기록이지만, 오늘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행해야 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라 모나이 왕의
개종이 예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남편의
복지에 관심을 쏟은
사랑하는 아내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면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번 위안을 되돌려
줌으로써 보답한다.

남편을 믿는 아내의 믿음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예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라모나이 왕의 개종이 예는
남편을 믿는 믿음과 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내의
이야기이다.

모사이야 왕의 훌륭한 아들인 선교사 암몬은 레이맨인에게
가서 라모나이 왕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했다. 영에 압도된 왕은
땅에 쓰러졌고, 그의 백성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왕후는 그가 아직 살아 있다고 믿었으며 암몬에게
간청하여 그가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알아 봐
달라고 부탁했다. 암몬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 뒤, 왕후에게 그를 믿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의 말
이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으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라고 믿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엘마서 19:9) 암몬은
그녀가 큰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녀를 축복했다.

왕후는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남편을 지켜 보았으며, 그는
일어나자 그녀에게 손을 뻗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다.
그대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 (엘마서 19:12)

라모나이 왕처럼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수많은 남편들이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한 남편들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믿으며, 영적으로 믿을 만한 근원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그것을 믿으며, 기나긴 어두운 밤에 밤이 새도록 크나큰
현신으로 그를 지켜 본 레이맨인 왕후의 모범에서 위안과 힘을
찾을 수 있다.

가르칠 의무

물몬경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원리의 실례가 가득 실려

있다. 니파이는 그의 부모를 “훌륭하신 부모님”이라고 했으며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니파이일서 1:1)

이노스는 훌륭한 부모와 가르침과의 관계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을 준다. “보라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이 의로운
분이었음을 아노니,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돌보심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을 돌리노라.”(이노스서
1)

이러한 예와 물몬경의 다른 예에서 보듯이 “의롭고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고대의 부모는 언어와
역사와 교양인의 태도를 가르쳤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 가장
많이 거듭 되풀이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엘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명에 관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준 가르침은 그가
취한 방식으로 인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다.
그는 힐라맨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나의 아들
힐라맨이여, 네가 아직 젊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서 모두를
배우라.”(엘마서 36:3)
엘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으나,
그는 자신에 관하여 그
자신의 개종과 죄사함에
관하여 가르침으로써
목적물을 수행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부모인 우리는 엘마의
교훈이 주는 단순한
위력을 적용함으로써



깜짝 놀라게 되고 보다 겸손해질 것이다. 자녀들은 보다 기꺼이 우리를 따르려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엘마가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서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강한 소망을 거듭 느낄 것이다.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물몬의 마지막 행동은 여러 면에서 엘마와 비슷하다. 물몬은 주위의 비참한 죄를 보고,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가르친다. 그는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을 묘사하면서 모로나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온갖 타락의 한 가지 징조는 가족에 관한 선한 일을 거절하고 악용하는 것이다.

그 사회의 극한 사악함을 기술한 연후에, 물몬은 마지막 가르침을 준다. “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또한 내가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올리시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모로나이서 9:25)

참으로 이 말의 시에에 거하는 우리 부모들은 물몬의 기록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가정에 관하여 가장 신성한 것을 우리 사회가 세차게 거절할 때에도 우리는 자녀를 우리 주위에 모으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야 한다.

자녀의 목표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물몬경은 자녀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리하이와 그의 아들 니파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니파이는 장차 오실 메시야에 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관해 이같이 기록했다. “나 니파이가 부친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 나서, 나 니파이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인 성신의 능력을 입어, 이같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알기를 간절히 원하였나니,”(니파이일서 10:17)

니파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받는다. 그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니파이는 아버지가 알고 계신 바를 자기도 스스로 알기를 소망한다. 그는 성신의 능력을 입어, 보고, 듣고, 알기를 원한다. 그는 주님께 기도한다.

물몬

물몬경은 의롭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중요한 책임에 대한 많은 예를 제시해 준다.

주님의 영에 이끌려 그는 높은 산의 꼭대기로 이끌려 갔고 그곳에서 그의 기도는 응답된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배운다. 첫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고, 둘째,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성신의 속삭임에 의해 스스로 알기를 원해야 한다.



가르침을 받은 후 오랫동안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종한 자녀들의 다음 예를 숙고한다.

엘마 이세는 자기 자신의 죄사함에 관하여 가르침으로써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다. 그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무시무시한 사흘 동안의 고통을 힐라맨에게 들려준다. 그는 “영과 육체가 한꺼번에 없어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엘마서 36:15)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려 세상에 내려 오시리라고, 그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한다.(엘마서 36:17) 자신의 죄로 인한 엘마의 슬픔은 결국 구원의 권세를 통해 사라진다.

물몬경의 또 다른 예언자인 이노스도 엘마처럼 부친의 말씀에 깊이 감동된다. 그는 이같이 기록했다.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이노스서 3~4) 온종일 밤이 되도록 기도한 후에 그는 한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노스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너의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이노스서 5,8)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물몬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실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와 같은 반복된 모범을 숙고할 때 구세주의 다음 말씀은 의미를 더하게 된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한복음 5:19)

특히 아버지들을 위하여

물몬경에는 특히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에게 주는 진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물몬이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 학대, 이혼, 아내 구타, 파렴치한 성 범죄 등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참히 거절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엘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 주위에 불러 모으고 어떻게 구속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알게 되었는가를 들려주어야 한다. 엘마와 물몬처럼,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자녀들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자 우리에게 간청할 때, 우리는 리하이와 모사이아처럼 우리 자녀의

엘마와 이노스가 개종하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도와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 즉 구속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쳐 준 자신들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의미가 깊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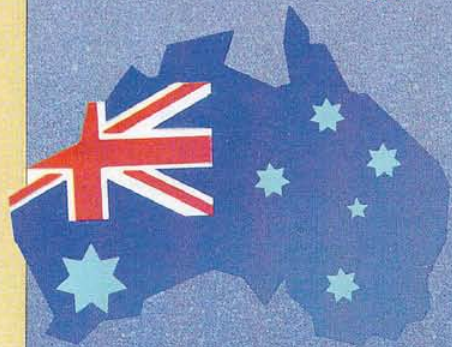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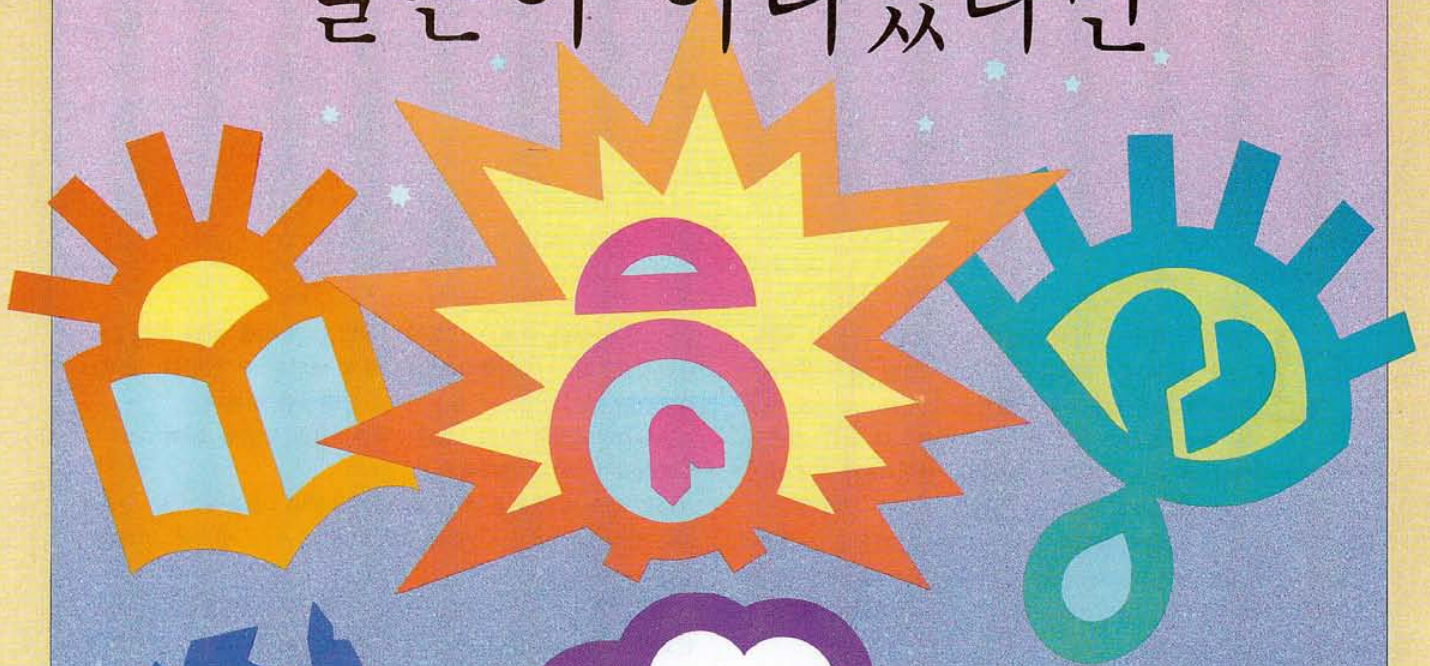
자녀들의 목표는 부모의 간증이 참된 것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이다. 부친의 의로운 가르침은 고난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여

결정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베나민 왕처럼,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리하이처럼 부모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가르쳐야 하며, 야곱처럼 영생의 기쁨에 관하여 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니파이처럼 경전을 상고해야 하며,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기록해야 한다.

가정을 침해하는 사회의 공격에 대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물몬경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가르칠 것을 권고한다. 니파이의 시작 첫 마디에서부터 물몬의 작별의 편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말일성도 가정에서 시행되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더불어 아버지들은 이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보다 더 적절한 메시지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물몬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다윈 토마스는 가정 연구소의 책임자이자 브리검 영 대학교 아동 발달 및 가족 관계 교수이며, 스페니쉬 포크 유타 스테이크 스페니쉬 포크 제14와드 감독이다.

“물몬이 아니었다면”



리안 아스큐

“만일 내가 몰몬이 아니었다면” 이 말은 내가 이 달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생각된다. 만일 내가 몰몬이 아니었다면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에 다섯 시 반에 일어나 섭씨 6도나 그 보다 더 낮은 기온의 추위를 견디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몰몬이 아니었다면, 나는 학교에서 보다 더 인정을 받았을 것이며 친구들과 함께 주말 파티에 어디든 쫓아 다니는 즐거움을 가졌을 것이며 나의 종교적인 믿음에 관한 모든 농담들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몰몬이 아니었다면 인생은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내가 결국 그날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화가 났고 실망했고, 지쳐 있었다. 만일 내가 몰몬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와 같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빠는 긴 가족 기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는 버스를 놓쳤다. 그리고 엄마는 어떤 상호부조회 모임에 가야 했기 때문에 나를 태워다 주실 수가 없었다.

나는 수업에 늦었으므로 도서관 뒤로 통하는 지름길을 이용했는데 난 그 곳에서 나의 옛날 남자 친구가 새로운 예쁜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내가 나의 표준을 기꺼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게 되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자 난 더 이상 자제할 수가 없었다. 난 가까이 있는 빈 교실로 들어가 울어 버렸다.

나는 겨우 결석 처리가 되기 직전에야 교실에 들어갔다. 다가오는 긴 주말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북쪽으로 다섯 시간 거리에 있는 해변가 휴양 도시인 엔트란스에 계획된 캠핑에 대한 광고지가 큰소리로 읽혀졌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라고 허락하실까? 아니야,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하고 월요일에는 가정의 밤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수학 시간에 나는 너무나 지루했으므로 얼마나 더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자명종 시계는 평상시대로 다섯 시 삼십 분에 울렸다. 다시 세미나리에 가야 할 시간이다. 왜 내가 가야 하지? 왜 매일 아침 다섯 시 삼십 분에 일어나야 하지? 그때 엄마가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늦을 것이라고 하시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 왔다.

그 날 아침의 주제는, “요셉 스미스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 요셉 스미스가 없었다면, 난 몰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는 “교리와 성약 122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 주겠어요?” 하고 부탁했다.

나는 힘들게 경전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난 진짜로 듣고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너를 함정에 던져 살인자의 손에 넘기고 사형을 선고할지라도, 저들이 너를 깊은 바다에 던질지라도, 몰아치는 파도가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열풍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풍우화석이 모두 힘을 모아 길을 가로막으며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네게 크게 입을 벌려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이다.”

나는 눈물이 가득 고여 마지막 구절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

며칠 후 나는 시드니의 향구가 보이는 오페라 극장의 발코니에서 있었다. 나는 내가 왜 종교로 인해 그렇게 구속받는다고 느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 스미스의 고통에 비하면 내 문제는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너는 저보다 크뇨?”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자신이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했다.

도시의 불빛이 별만큼이나 밝아 보였다 나는 자신에게 “난 내 나라가 자랑스러워. 독특한 미와, 사람들과 문화로 가득 차 있어. 이 아름다운 식물, 동물,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난 세상에서 유일한 참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하고 말했다.

“만일 내가 몰몬이 아니었다면,” 이 구절은 아직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다른 면에서이다. 만일 내가 몰몬이 아니었다면 난 이렇게 훌륭한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그처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내가 십일조를 얼마나 냈는가를 계산해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

광둥어

자라나게 하셨나니

마이클 칼

그 곳의 예배당을 찾는 것은 내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날씨는 덥고, 습도는 높고, 광둥어를 배우는 것 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홍콩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망과 향수에 젖어 있는 선교사로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필요하지도 않은 주소를 준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광둥어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태가 그렇게 되라리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지역의 선교사들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막 집으로 갈 때쯤 홍콩의 스타 페리호 근처에서 가두 전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구도자 소개를 얻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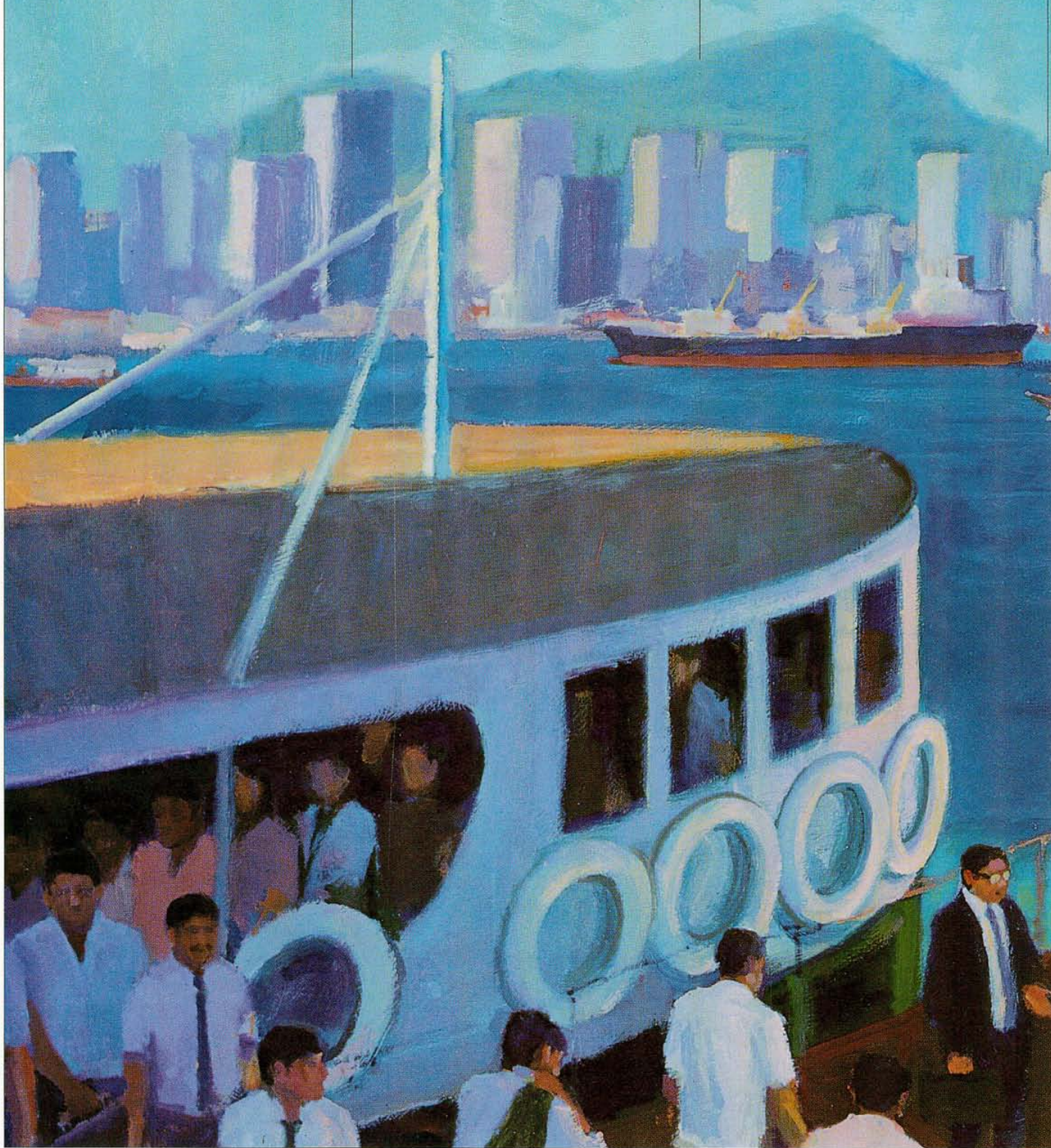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두번째로 보편적인 중국의 방언인 광둥어를 말하는 데 있어 나의 미숙함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났다. 중국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해 보였고,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나는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으므로 나는 주님에게 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나는 왕씨가 여객선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을 때 그를 보았다. 그는 좋은 사람 같아 보였다. 그는 청색 양복에 검은 신을 신고 있었다. 그의 안경은 코 위로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넥타이가 아직도 목에 매어 있기는 했지만 무더운 날씨에 아주 어색해 보였다. 나는 얼른 내가 할 수 있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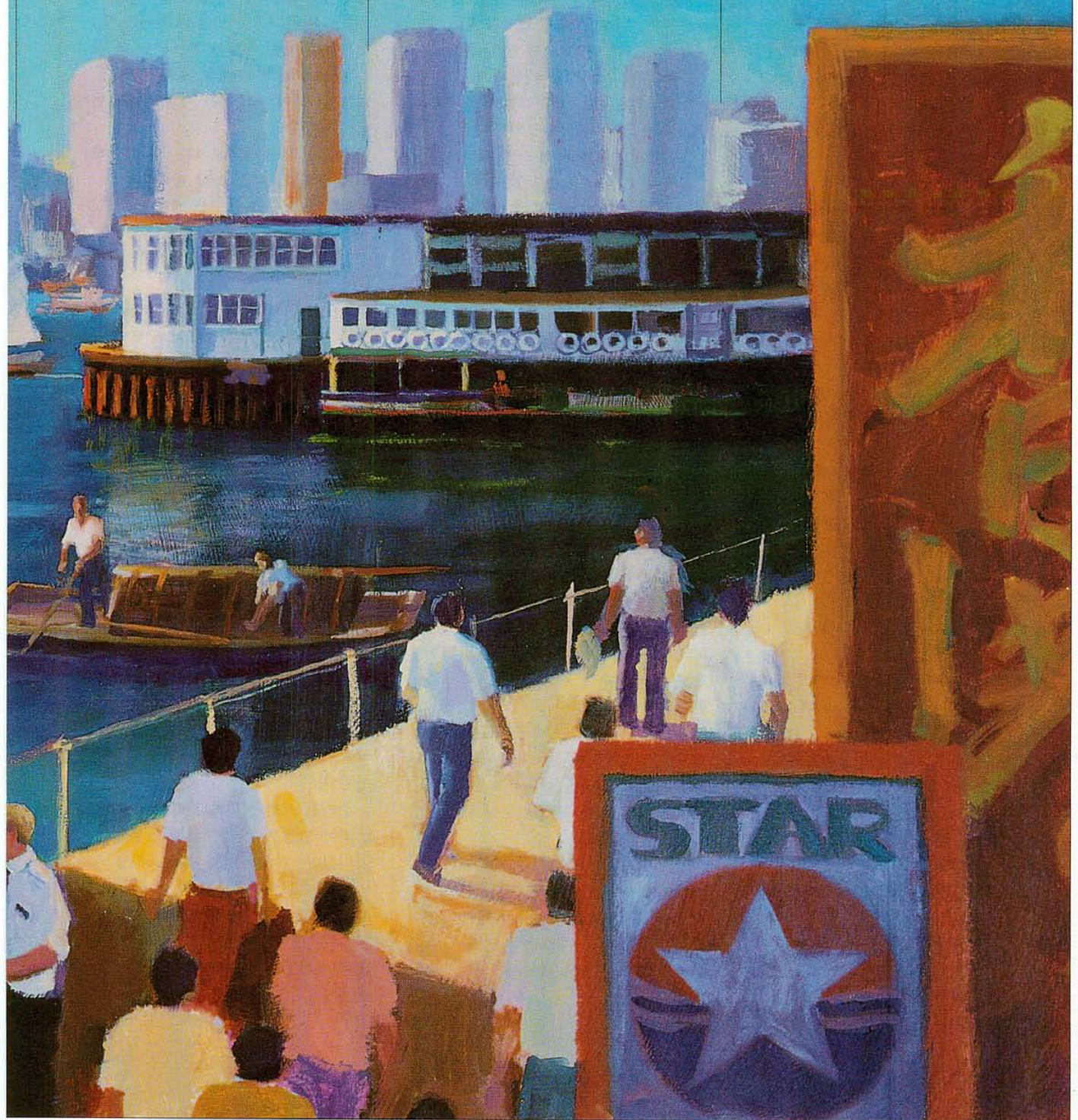
자신감을 갖고자 노력했다. 마음 속으로 얼른 기도하고 깊이 숨을 쉬 다음 그에게 가기 시작했다. 선교사 훈련 센터의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위해 나를 잘 준비시켜 주었다.
나는 가장 귀한 질문을 하고 구도자
소개를 얻는 법을 여러 번 연습했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어떤 준비로서도

내가 그때 배우게 된 것을 가르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좋아요.” 하고 그는 내가

중국말이라고 알고 있었던 언어로
대답을 했지만 내가 선교사 훈련
센터에서 배운 것과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씨는 대답을 했지만 다른 때처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 이름은 강 정로입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는 말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성이 왕씨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손에다 왕이라는 중국 문자를 써서 보여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만, 난 아는 것처럼 했다.

“우리 교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몇 마디 중의 하나였고, 나는 지난 삼 주일 동안 여러 차례 그 말을 사용했었다.

나는 왕씨에게 내 명찰을 보여 주었고 그는 중국말로 된 교회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아, 교회!”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예, 저는 이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하고 명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에 대해 내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새로운 선교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길고 어려웠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나는 구도자 소개를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아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주소? 주소를 원하세요?” 하고 물었다.

“예, 당신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종이에 펜을 꺼내 주소를 적거나 그에게 써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 겁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의 손짓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바로 여기 계십시오”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는 그에게

확신시켰다. 그는 어디로 갔는지 왜 내가 기다리기를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혼자 그곳에 있었다.

왕씨는 십오 분 뒤에 중국인 근로자들 가운데서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손에 종이를 들고 빨리 걸어왔다.

그는 다가오면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그에게 걸어갔다.

“여기 있소” 하고 그는 영어 전화 번호부의 한 페이지를 나한테 건네 주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소에 동그라미가 쳐 있었다.

“여기 당신 교회의 주소가 있어요.”

그때서야 나는 왕씨가 날 교회를 찾고 있는 길 잃은 외국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감사를 하면서 나는 자신감을 잃어 버렸다.

왕씨는 자랑스러움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그는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중에 봅시다” 하고는 다시 “이것 가져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에게 요셉 스미스 소책자를 건네 주었다. 나는 그에게 두 손으로 건네 주었고 그는 중국의 관습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받았다.

“최소한 선교사 훈련 센터에서 배운 것이 있었구나.” 나는 문화적인 관습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혼자 말했다. 왕씨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 갔다.

나는 그날 밤 힘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지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꼈다.

여러 달이 지나면서, 내 자신감도 커졌으며 나는 곧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내 마음 속에는 새로운 구도자들, 새로운 동반자, 새로운 가두 전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다.

일 년 뒤 나는 홍콩의 다른 지역에서 구역 관리 선교사가 되었다. 어느 일요일 나는 선교 사업 문제로 내가 처음 봉사했던 지역에 가게 되었다. 그 첫번째 예배당에 들어서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그곳 와드에서 옛날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기뻐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나는 옛날의 친구들을 더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을 지켜 보았다. 얼마 안 되어 그곳에는 나와 동반자만이 남게 되었다.

우리가 막 떠나려고 하는 데 교실의 문이 열렸다. 나는 스타 페리호의 근로자인 왕씨가 어두운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눈이 크게 떠졌다.

“미스터 왕! 안녕하십니까?” 나는 너무 놀라 물었다.

“난 이제 왕 형제입니다. 쿨 장로님” 그는 완벽한 중국 표준어로 말했다.

“표준어를 사용하세요? 부두에서 내가 당신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군요!”

“당신은 광둥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 형제는 일 년 전에 부두가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뒤 집으로 가서 요셉 스미스 소책자를 읽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지 호기심에서 그것을 읽은 것이었다고 했다. 영이 그의 영혼을 감동시켰고, 그는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 선교 본부에 전화를 했고 두 명의 자매가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간증을 얻었고 침례를 받았다.

우리의 재회는 비록 전에 한번밖에 본적이 없었으나, 감미롭고 기쁜 것이었다. 나의 마음은 감동되었고 영은 나에게 고린도인에게 주신 바울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린도전서 3:6)□

사랑하는 조이에게 :
 내일은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네가 9학년을 맞이하는 첫날이구나. 나는 내가 너보다 더 현명해서가 아니라, 이미 고등학교를 거쳐 왔고 앞으로 네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 때로는 네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가 아주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네가 때로는 외롭다고 느낄 것이라는 것도 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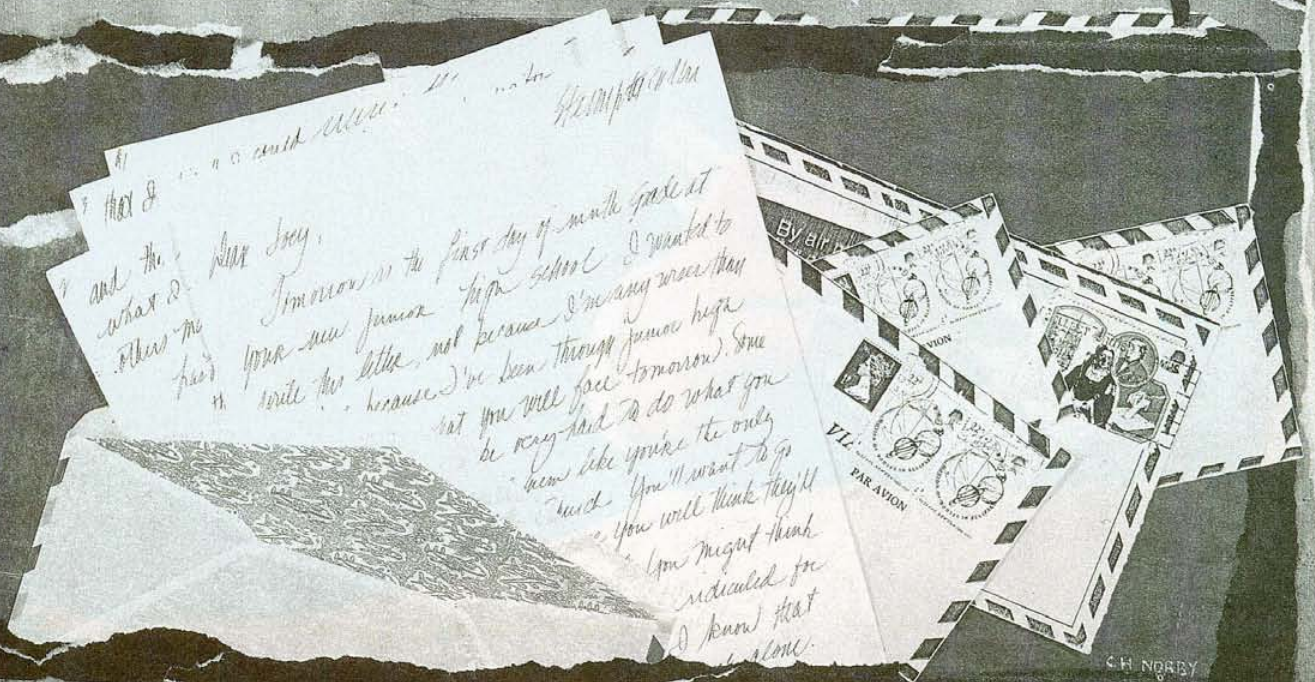
생각하는 것을 항상 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내가 배운 것을 너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지난 여름 내가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나 있었을 때 나는 매일 시내로 버스를 타고 가야 했었다. 그때 나는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가장 기분 나쁜 지역을 통해 여러 구역을 걸어가야만 했었다. 나는 내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 바로 다음에 아주 더러운 거리가 있었던 걸 기억한다. 그 거리의 상점들 벽에는 온갖 외설물과 선정적인 포스터, 무례한

낙서들, 지속적인 욕설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술집이 있었는데 매번 외설스런 음악이 열린 문을 통해 요란스레 흘러나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나에게 이상한 말들을 외쳐대기도 했다. 내가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 처음 그 도시로 갔을 때, 나는 버스를 내려 그 거리로 곧장 걸어갔다. 반쯤 갔을 때 나는 너무나 불쾌하고, 감정이 상하고, 두려웠으므로 나는 그 남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능한 한 눈을 감은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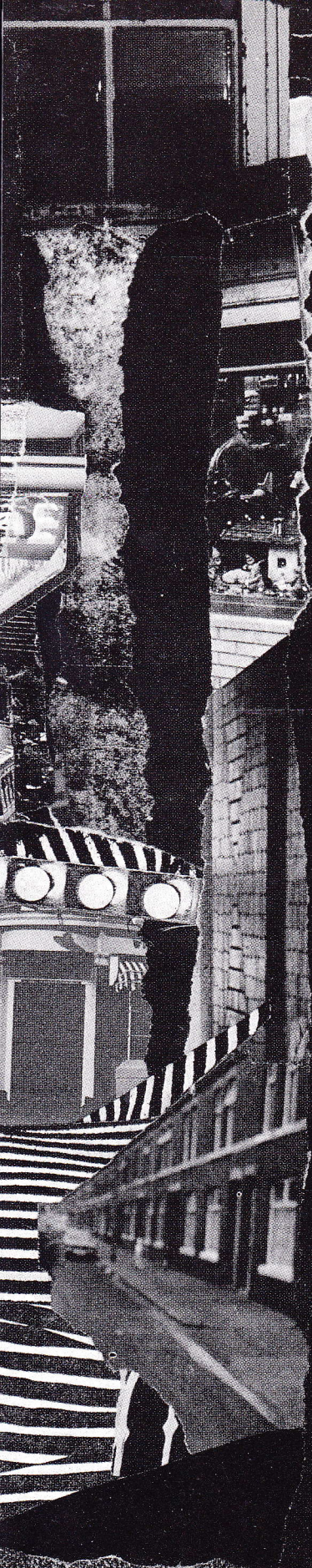
길을 건너 감

남동생에게 보내는 편지

비비안 해머







걸어갔지만, 그 순간 나는 다시는 그 거리를 걸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나는 걱정해야 할 일이나 유혹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거리 문제까지 보탬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내리면 그 거리를 피해 멀리 돌아서 가곤 했다. 때때로 비오는 날 아침 8시 수업에 늦었을 때면 내 결심을 잊어 버리고 그 지름길을 택해 가고 싶었지만, 나는 내 자신을 불결한 것에 노출시킨다면 내 마음 속이 거북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매일 아침 멀리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건너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얼마 후에는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한 친구 봄이 나에게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새로운 음악 상점을 보여 주겠다고 제의했다. 우리는 함께 학교를 나섰고 나는 자동적으로 길을 건넜다.

“뭐하는 거야?” 하고 봄이 물었다.

나는 아무런 생각없이 “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 하고 말했다.

“왜 안돼?” 하고 그는 웃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이전에 없었던 많은 나쁜 생각들을 마음 속에 가지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거리에서는 편안하지가 못했다.

봄은 나보다 몇 살이 더 많았고 나보다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다시 웃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내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 바보짓이었다고 느꼈다.

그의 웃음이 그치기를 기다리던 나는 그의 얼굴엔 진지한 표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 분 동안의 침묵 뒤(나에게는 아주 불편한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그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나와 같은 결심을 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비안, 나도 그 길을 건너다녔다면 좋겠는데, 나는 집에 돌아가 가족들이 보기가 부끄럽다. 나는 내가 보고 행한 것 때문에 어머니를 쳐다볼 수가 없어” 하고 말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마음이 훨씬 편안했다. 그리고는 그는 내 팔을 잡고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건넜다. 우리는 얼마 안되어 음악 상점을 찾았고 우리가 택한 길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 그는 이제 언제나 소중한 그런 친구이다.

나는 도덕적, 정신적 순결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한 전부는 길 다른 편에 내가 보아서는 안 될 무엇인가 있었을 때 그 길을 건넌 것 뿐이었다. 그는 비웃거나 비평하지 않았고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다.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나는 사실상 봄의 존경과 우정을 얻었다.

조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내가 옳고 훌륭하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누구의 존경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안다. 게다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너의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너는 해야만 할 때는 길을 건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네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관리하고 있는나? 친구가 너에게 응답이나 불결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그 방을 떠나겠느냐? 너는 네가 믿는 것을 고수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그 길을 건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JOSEPH RECEIVES THE PLATES

The Testimony of Three Witnesses.

Be it known unto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unto whom this work shall come, that we, through the grace of God the Father, and our Lord Jesus Christ, have seen the plates which contain this record, our Lord Jesus Christ, have seen the plates which contain this record, our Lord Jesus Christ, have seen the plates which contain this record...

- OLIVER COWDERY,
DAVID WHITMER,
MARTIN HARRIS.

And also the Testimony of Eight Witnesses.

Be it known unto all nations, kindreds, tongues, and people unto whom this work shall come, that Joseph Smith, Jun., the translator of this work, has shown unto us the plates of which hath been spoken, which have the appearance of gold; and as many of the leaves as the said Smith has translated, we did handle with our hands; and we also saw the engravings thereon, all of which has the appearance of ancient work, and of curious workmanship...

- CHRISTIAN WHITMER, HIRAM PAGE,
JACOB WHITMER, JOSEPH SMITH, SEN.,
PETER WHITMER, SYRUM SMITH,
JOHN WHITMER, ABEL H. SMITH.

